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ONTARIO M5S 1A5

MAY 1 2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21 1982년 5월12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May 12,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점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독립이민 온 항공정비사들

"직장 구할 길 없어"

경제불황으로 업계부진, 생활대책 막연

단독이민은 거의 없어졌다는 말이 떠돌정도로 어려워진 캐나다 이민에의 관문을 뚫고 이민에 성공한 수십명의 한국인들이 있다. 대한항공(KAL), 공군등에서 근무하다가 이민온 80여명의 항공정비사들이 그 주인공들.

그러나 이민 신청 당시 이민관이 직장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던 얘기와는 달리 1명도 직장을 못구한 이들 항공정비사들은 7일 본사를 찾아 실정을 호소했다.

항공정비사로 이민온 사람들은 10일 현재까지 토론토에만도 41세대, 뱅쿠버에 40세대, 오타와에 3세대, 캘거리에 1세대가 있다.

엄격한 이민심사를 거쳐 온 이들은 평균 경력 10년이며, 대부분 연령이 40세 미만으로 딸린 가족까지 합치면 이들의 이민으로 대략 2~300명의 캐나다 이민자 수가 증가한 셈이다.

이민당국으로부터 기술을 인정받고 이민왔으므로 정부가 직장을 보장해 줄 것으로만 기대했다는 김영전씨는 "이렇게 직장이 없을 줄 알았으면 아예 올 생각도 않했어요. 속은 기분입니다"고 말했다.

"토론토공항에 나서니 어디로 가야할지 막연 합디다.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길도 몰라 영사관에 문의하니 아무 모텔에라도 들라고만 하니…. 새 이민자를 위한 안내·상담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항공정비사들 중 작년 12월17일 토론토에 제일 처음 도착한 유정천씨의 말.

이들은 직장이 보장안되고 가족이 딸린데다 아파트는 비싼데다 구하기도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콘도미니엄을 빌려 2,3세대가 나누어 쓰고 있다.

토론토에서는 829 버치·마운트·로드의 콘도미니엄에 20여 세대가 몰려 있다.

맨·파워에서 지급하는 주 백여불의 생활보조비로는 생활이 난감, 대부분이 저녁에는 지렁이를 잡는다.

본사를 찾아온 신달승·김영전·이종환·함상국·신상회·이강호씨의 항공정비사들은 한결같이 "이민초기의 어려움을 각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80여명 중 항공정비사로서 직장을 찾은 이는 1명도 없다면 문제가 있다. 에어·캐나다, 씨피·에어, 더글라스항공사등 크고 작은 항공사에 모두들 알아보았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언어는 둘째고, 우리의 경력조차 인정 않한다. 미항공국 면허를 보여주었으나 교통국에서도 캐나다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면허시험 자격을 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민으로 대거 80여명의 정비사들이 빠져나가 대한항공(KAL)사가 흔들릴 정도 였다고 말하는 김영전씨는 동양인이고 영어도 잘 못해 이곳 정부가 좀 소홀히 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 처음에는 맨·파워 당국에 가서 항의 데모를 할 생각까지 했다. 어떤 맨·파워 사무실에서는 비행기표 줄테니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교민배가 1만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인총연합회의 오기송회장은 11일 이들 항공정비사들에 대해 "우선 새로오신 교민들을 환영한다. 캐나다 경제가 아주 나쁜 때 이민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클 줄 안다. 오타와대사관등에 대책을 의논해 보겠다. 그러나 최근 뱅쿠버에서 짐·플레밍 복합문화성장관을 만났을 때도 캐나다정부는 연 14~15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 이들의 문제는 이민증배 운동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오타와대사관의 이현홍공사로 부터 토론토총영사관 협의, 정비사들의 현황을 파악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상훈토론토총영사는 "이들이 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구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캐나다 경제가 회복되고, 항공업계가 호전될때까지는 임시로 다른직업이라도 택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로저·화이트 이민성 공보관은 11일 "많은 독립 이민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딱한 사정은 이해하나 일차 원인은 캐나다 경제의 악화이므로 이민성으로써는 별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날로 악화되는 캐나다의 실업사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5월1일을 기해 고용계약이 없는 사람들의 이민 허가를 제한, 국내인 우선 고용원칙을 결정한 바 있다.

◆7 일 본사에서 이민을 왔으나 직장구할길 난감하다는 항공정비사들.

"재정적자로 인해 금리인하"

미재무, 세계경제개발회의에서

(파리) 미국정부는 미국의 고금리가 세계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서방국가들의 비난을 일축하고 미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미국경제 회복책의 실패작전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세계경제 악화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다"고 미재무장관 도날드·레이건이 10일 파리의 세계경제개발회의에서 말했다.

캐나다의 맥케큰재무상을 비롯한 전세계 23개국 재상들은 레이건장관의 변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번 회의는 6월의 서방7국경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타협점을 모색키 위한 회의였다.

레이건장관은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것은 서방국가들의 압력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올 것"이라고 못박았다.

통일교 승소

뉴욕항소법원 종교단체로 인정

〈알바니(뉴욕)〉 탈세혐의로 뉴욕주법원의 재판에 계류중이던 문선명씨의 통일교회가 6일 승소했다.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뉴욕 항소법원의 판사7명은 6일 통일교가 종교단체라는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 항소법원은 이로써 통일교가 종교단체라기 보다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종교단체이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판시한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항소법원 재판 판결문을 작성한 휴즈·존스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교회교리의 질이나 목적을 판결할 권리가 없으며 「그 교회가 교회의 신념과 활동을 일치시키고 그 일치가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법원은 그 교회를 종교단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
対 몬트리얼·매닉
15일 8p. m. CNE
●입장권예매처
한국일보 : 533-2361

社說 삶의 풍요

—잘사는 이민생활

"이민생활을 보다 알차게, 보람있게 보내는 길은?…"

이것은 모국을 떠나, 해외에 발을 붙인 초기부터 누구나 다 품는 당면과제 이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내적충일과 생활의 안정으로 이루어지는 행복감의 지속일 것이고, 집단적면에서는 조상전래의 장한 정신문화며 전통을 이땅에 옮겨심어 적응, 동화시킴으로써 이 고장의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이 나라 사회의 문화발전에 크게 보탬을 줌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도 풍요와 번영을 물려주는 일일 것이다. 이나라가 정책으로 「복합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것도 다양한 문화토양 조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모국을 떠날때 저마다 보다 잘 살아보자는 벅찬 꿈과 넘치는 의욕을 품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이 북미대륙에 닻을 내렸던 것이다.

그 잘사는 길을, 우선 물질의 풍요에서 찾아, 생활안정을 하루 속히 앞당기기 위해 체력에 겨운 고역을 과중한 시간에 걸쳐 감수해온 것은 이민 선착자들의 한결같은 일과였으며, 그 후속 이민겨레들 역시 부지런히 노력을 거듭하여, 이민역사 20년도 못되는 짧은 시일 안에 우리 한인사회에는 과반수의 세대가 생활안정, 또는 그에 육박하고 있어, "부지런한 코리언", "성실한 생활인" 칭호를 받기에 이르렀음은 타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생활력 과시라 하겠다.

메트로·토론토의 경우, 1천개를 헤아리는 코너스토어들—잡화점·빵집·기프트숍등을 한인들이 차지하여 연중무휴, 밤 늦게까지 문여는것은 으례히 한인가게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들 잘 뛰고 있는 터이다.

이같이 피나는 노력을 계속한 결과 오늘 와서는 유산층 자산가에 속하는 교포수가 꽤 많아졌으며, 계속 늘고 있으니 이는 고무적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생활의 초점은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아니된다. 한 단계 올라선 자리에 높이 두어야 비로소 삶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어떤 교포들은 생활안정이 되었으니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골프나 치고, 장기여행이나 하는것으로 삶의 환희를 맛보려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생각의 칫수를 깊이 있게 재어보면, 물질의 풍요를 힘입은 생활의 안일은 결코 인생의 목적이 아니며, 그것만으로는 참다란 행복감을 지속성 있게 안겨주는 것이 못됨을 쉽게 깨달을 것이다.

시야를 넓혀, 좁게는 불우한 이웃, 넓게는 한인사회, 나아가 이 나라 사회에까지 우리의 온정의 손길을 뻗침으로써 이웃사랑의 진미를, 봉사의 진복을 느껴야 비로소 삶의 진미를 만끽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불우이웃 돕기, 사회복지를 위한 회사등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단체가 우리의 주변에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들을 외면 일변도로 대한다면 우리는 죄없으나 죄인! 떳떳한 사회인으로 자처하기에 쑥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생활면에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골프나, 들놀이나, 여행등을 즐기는 것은 기분전환과 신심 피로를 풀기위해 꼭 필요한 건강요법이요, 건전한 리크레이션이니 형편이 가능한 이 에게는 얼마든지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도 아까운 일이다. 지적, 정서적, 정신적 자양분도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섭취해야 우리의 인생적 공간을 흐뭇하게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내적 충일을 주어 빛다운 차원으로 드높이는 것은 역시 독서와 명상—인생철리를 고찰하고, 각자나름 삶의 참뜻과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기성실에의 노력, 혹은 종교에 몸 담아 신념으로 생명을 불태우는것도 잘사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올바른 신앙은 일상생활에 의미를 부여하여, 현실삶의 가치를 깨닫게 함과 아울러 피안의 삶에까지 영의 시야를 넓혀주는 내적행복의 원천이 되어주기도 한다.

아울러 양질의 독서는 생활 자체를 살찌우며 정서와 지식과 경험으로 마음을 윤택하게 해주는 점에서 능히 사람의 교사요, 길잡이가 되어준다 하겠다.

독서로 하여 무질서하게 아무 글이나 닥치는대로 읽는것은 시간 낭비가 되겠고, 흥미위주의 책만 탐독하는 태도는 혀에 단 음식은 건강에 큰 도움이 못주듯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못되고 있다. 그래서 양서를 찾고, 명작을 권하는 것이다.

한편의 명작은 그것이 소설이건, 시이건, 희곡, 수필이건 사람 일생의 방향을 돌려놓게도 하고, 대오각성! 진리와 삶의 새로운 발견을 얻게도 하는 "꿈과 지혜를 키우는일"인 것이다.

호주머니, 침대머리, 책상위, 자동차, 연장통에까지 책을 늘 신변 가까이 비치하여 금싸라기같은 틈틈이 탐독하는 버릇을 키운다면 그의 삶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지식과 슬기 또한 장족의 발전을 약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른다운 지혜!

그것은 진지한 인생체험과 철저한 성찰(묵상)과 꾸준한 독서의 복합결정이라 하겠다.

"이민은 자동적 문화사절"이라 했다. 우리가 이 나라 사회에 알차게 이바지하는 길은 민족의 장점—전통·사상·문화·미풍양속을 현재형으로 되살려 이 땅 문화창달에 추진력을 보태는 것이다. 그것은 어엿한 시민의 긍지요, 또한 사명이라 하겠다. 역사가 짧고, 문화적 발전도상에 있는 이 나라는 역사 깊고 전통사상이 도도록 높은 우리의 윤리·도덕·예술·정신문화면의 장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생활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짐이 되기보다 힘이 되고, 이끌어 나가는 역군이 된다는 결의와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오늘의 예금금리 (4월23일 부터)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R.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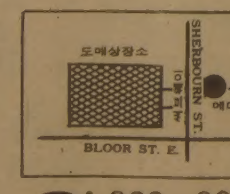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IRAGE BOUTIQUE
구명 : 코스모스숙녀복집

예전 코스모스숙녀복집을 인수받아 교민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드릴것을 약속드리며, 배전의 지도편달과 이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최은경 올림
영업시간 :
(월～목, 토)오전11시～오후6시30분
금요일 : 오전11시～오후9시
704 BLOOR ST. W.
(아리랑식당옆)
☎ : 530－1870

한국인의
꽃·화초
도(소)매상
스페샬 세일
※국화
A－1 $2.50



☎ : 923－9948

잠간 주목 합시다!!
⊙당신의 체중을 15～27 파운드 줄일 수 있읍니다.
⊙주름살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활력을 소생시킵니다.
ALL BACKED BY PHYSICIAN'S 개런티
If yes, We will show you how to earn over $6,000 Net monthly, come to the PRINCE HOTEL, Princess Room This Thursday, May 13th 7 : 30 p.m 정각
Or Call 281－0356
일 시 : 1982년 5 월13일(목) 오후7시30분
장 소 : 프린스호텔 프린세스룸 (York mills × 돈밀스)
※전화문의사항 : 281－0356
Dr. David K. Shefrin

이훈모부동산
1) 개인도나스 숍
주매상 4,000불
비데오머신 1,800불
렌트 1900년까지 1,300불+10년
다운페이 65,000불 요망
아스킹 135,000불
2) 개인주매상 5,000불
비데오월수익 1,000불
렌트 1,700불
리스 18년
모게지 75,000불(11%)
아스킹 140,000불
다운페이 65,000불
3) 블루아한인상가에 점포및 주택 14만5천불 요구.
※도낫츠숍은 부업으로도 적당함

East AsianLibrary
Rm 03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자동차 경주왕 빌뇌브 사고사

벨지엠 그랑프리에서, 캐나다최고의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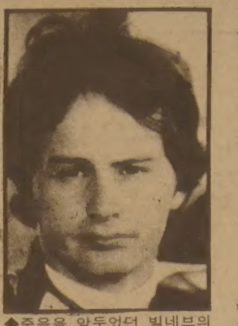
"나는 언젠가 큰 충돌 사고가 닥칠것을 알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죽음뿐이다.'

자동차경기의 영웅 길르·빌뇌브가 생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캐나다 쾌백주 출신인 빌뇌브는 그의 예견대로 지난8일 벨기에에서 있은 그랑프리(Grand Prik) 최종예선에서 앞에가던 차와 충돌 헬리콥터로 인근병원에 이송했으나 곧 절명했다. 그의 나이 30세.

벨지움의 졸더에서 열리는 9일의 그랑프리 본선을 앞두고 이미 예선순위 8위를 차지한 빌뇌브는 순위를 올리기위해 본선 하루전 최종예선전에 출전했다.

소의 내장처럼 꼬인 4.26Km의 졸더(Zolder) 자동차경기 코스는 코너의 회전이 급하고 직선트랙과 코너트랙을 잇는 부분의 경사도가 심하기로 악명이 높아 자동차 레이서들이 두려워하는 코스중 하나다.



◆죽음을 앞두었던 빌네브의 모습

빌뇌브도 죽기 몇분전에 "트랙을 달리며 섬뜩한 기분을 몇번인가 느꼈다. 급회전을 할때 레이서들의 시야는 흐려지며 스피드와 방향변경으로 생기는 원심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졸더코스를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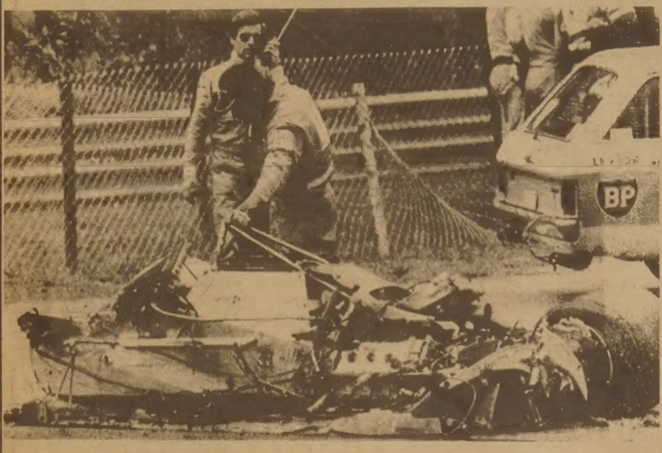
사고는 예선전 종료 8분여를 남기고 일어났다. 빌뇌브의 유명한 빨간색의 「No.27 페라리」가 커브길에서 앞서가던 서독의 선수 죠헨·마스의 차를 추월하려다 마스의 차 오른쪽 바퀴를 들어받고 100피트 높이로 공중회전하다 모래둑에 추락, 차는 두쪽으로 갈라져버렸다."

이때 빌뇌브는 시속 170마일로 운전하고 있었다.

전문가에 의하면 경주용 자동차는 보통 시속 100마일 커브길을 돈다.

캐나다에서 가장 위험부담이 큰 많큼 수입도 많아 연봉 $3백만으로 캐나다에서 최고위 소득선수인 빌뇌브는 공격적이고 대담한 운전으로 유럽의 자동차경기 팬들의 인기를 오랫동안 얻고 있었다.

빌뇌브의 유해는 9일 벨지움에서 몬트리얼로 옮겨졌다. 몬트리얼에는 빌뇌브의 부모와 동생이 살고 있으며 빌뇌브의 두자녀와 아내 죠앤은 모나코의 집에서 그가 운명하기 바로전 도착 그의 죽음을 지켜봤다.



◆캐나다의 경주왕 빌네브를 앗아간 자동차의 잔해.

김동천·이인숙 남녀1위

제2회 체육회장배 볼링대회

지난 8일 열린 체육회장배쟁탈 교민볼링대회에서 남자부 김동천씨와 여자부의 이인숙씨가 576, 451점으로 각각 우승했다.

100여명 교포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플레이타임(로렌스×터프린)볼링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예년의 부부전 대신 남·녀혼합전이 벌어져 19개조가 참가한 가운데 조병준씨부부가 996점으로 우승했다.

하이싱글에서는 남자부 개인2위를 차지한 최종대가 214점으로 1위를 가록했고, 여자부에서는 이호숙씨가 17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교민볼링대회는 당분간 쉬게되며, 다음주에 끝을 맺게되는 한인볼링 리그전은 오는 9월부터 다시 시작한다.

각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남자개인 :
1위 김동천(576점)
2위 최종대(545점)
3위 김총석(538점)
◆여자개인 :
1위 이인숙(451점)
2위 김인옥(441점)
3위 장한샘(431점)
◆혼합조 :
1위 조병준부부(996점)
2위 이상렬·조병숙(96 3)
3위 이종현부부(957)
◆핸디캡 :
1위 오세호(655)
2위 장인택(644)
3위 정용필(629)
◆하이싱글 :
남자 최종대(214)
여자 이호숙(170)

FBI 비공식 수사

윤동구 실종사건

(워싱턴 10일=연합)윤보선전대통령의 윤동구씨의 실종사건은 지난 4월부터 FBI에 의해 비공식적 수사중일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현주미대사는 윤씨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미연방 수사국(FBI)에 수사의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FBI 대변인은 지난 10일 한국대사관으로 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으나 워싱턴의 한국고위관리는 비공식적으로 FBI에 수사요청을해 윤의 행방을 찾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리는 윤이 범죄단체나 북한에 의해 유괴당한 가능성은 배제했다. 그는 윤이 이 사건 전에도 몇차례나 몇달동안씩 종적을 감추곤 했던 방랑벽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윤이 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어디엔가 은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협 사무실 이전 블루어 한인상가로

실협인협회(회장 차선결)는 지난 2일부로 사무실을 블루어 한인상가로 이전했다.

새 주소는 627A Bloor St. W. 앞으로 외환은행지점이 들어설 건물2층, 한국관건너편 이며 새 전화번호는 533-7923, 7924, 핫·라인은 533-8344이다.

◆바로잡음◆

본보 5월10일자의 통권호수는 NO.820이 아니라 No.819입니다. 또 11일자 No.821은No.820으로 바로잡습니다.

국제언론기구 총회개막

43개국 언론인 마드리드에 모여

(마드리드 10일=연합) 제 31차 국제 언론기구(IPI) 총회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스페인국왕 후앙·카를로즈의 사회로 10일 개막됐다.

43개국에서 온 4백여명의 언론인들 앞에서 카를로스 국왕은 "언론은 각국의 양심과 지성을 반영하는 메아리가 되어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교환은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덧붙였다.

개막식후에 있은 총회에서 김상만동아일보 명예회장은 런던에 소재한 IPI본부 이사 6명중 하나로 선출됐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3일간의 회의중 언론인 면허발급문제와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등 의제가 집중 토의 됐다.

IPI는 언론의 자유및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의 교환 촉진을 위해 창설된 언론인의 모임이다.

〈수 상〉

파—킹

유인형

「아니?」

노란딱지다. 그 사이에잽싸게도 붙여 놓았다. 가만히 앞뒤차를 살펴본다. 모조리 한장씩 붙어있다.

「여기도 동지가 있다 이거여!」어쨌거나 벌금티켓을 받으면 유쾌할리는 없다. 겉으로는 빙긋 웃으면서노란딱지를 찢어버린다.

「경고장이나 붙여 놓았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원래 법이란 인정사정이없다. 2주동안 모른체하고 있으면 정중한 서신이 날아온다. 언제 어디서 얼마의 벌금을 잡수셨는데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지체벌과금이 가산됩니다 하는 내용이다.

이런때엔 후딱 수표를써 주는게 좋다. 일개인이 나라법을 무시하겠다는건 술취한 새앙쥐가 고양이 앞에서 폼잡는 격이다.

「하이! 금테모자님, 당신이었소?」

「할로우, 미스터」

금줄이 처진 바지를 입고 한손에는 완고스런 벌금전표를 움켜쥔채 왔다리 갔다리다.

마치 머저리 장군께서열병식을 하는것처럼 주인없는 차마다 쫓아다니며 고약한 티켓을 써붙이고 있다.

「금테모자님, 혹시 헬퍼가 필요한가요?」

「미스터, 또 봅시다.」

「또 봐요? 당나귀 뼈따귀같은 녀석아!」

이럴때엔 영어반에다 모국어가 반쯤 섞여서 튀어나온다.

가끔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 바쁨과 빈틈없는 파킹탓이다. 몇바퀴 돌다가 다급한김에 정차하지 말라는 곳에 살짝 대었다가 꼬리가 붙들리었다.

어느때엔 동전이없어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어디로 출장을 갔어, 동전주머니가?」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없다. 평소엔 귀찮다가 필요할때에만 없는게 동전주머니다.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나 번화가에 파킹을 할때마다 담배쌈지같은 동전주머니 가 없다.

「젠장 어쩐다?」

지혜는 무용지물이다. 기웃거리며 돌아본다.

「금테모자 어디있지?」

옳거니, 잘됐다. 몇분만실례를 하자. 아무렴 못보면 그만이지 뭐. 잠시 일을 보고 나오면 어느 사이에 와이퍼에 노란티켓이 걸려있다.

「우와, 귀신같구나」

투털거리고 있으면 히피족같은 장발이 바라본다.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것처럼.

「그것봐, 그러니까 두발로 걸어다닐때가 얼마나좋았냐 이거야.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으며상쾌한 공기를 마셨던 그 시절이!」

「허, 그건 그려.」

정말 하늘로 치솟는 공간이용의 파킹장이 늘어나는걸 보면 심각한 무엇이 피부에 와 닿는다.

언제인가 친구의 초대에 갔었다. 공용파킹장이 만원이라 슬그머니 세우지 말라는곳에 파킹해 놓았다. 신나게 떠들고 마셔대다나 와보니 징그러운 벌금티켓이 기다리는게 아닌가.

「참, 김새네!」

「왜 소화가 안돼?」

「자네도 한장 붙었구만!」

「이건 옛날거야. 차에서 내릴때에 미리 붙여놓고시동걸때엔 이렇게 안으로모셔놓거든!」

「뭐?」

「승용차란 마치 애인같거든. 애인이란 사랑하는자의 애정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딱지를 붙여놔? 어—내 키! 꽂아놓고 내렸구나.」

「칠칠맞게. 이봐, 아예 비상키를 이렇게 목에걸고다니란 말야!」

「얼씨구!」

「다 노련한 해외선배 에게 물어봐.」

「시끄러 빨리가. 밤낚시할 옷걸이하고 후렛쉬나빌려와!」

「잘먹었었다고 몇번이나 인사를 해야하나?」

「그러니까 친구아녀! 또 한번 깍드시 절을 하고 옷걸이 철사를 실례해와!」

「딱하군. 거기다 명령을 좋아하니 당신은 아무리봐도 선뜻선뜻하게 찬바람이 부는 장군감이야.」

「알아줘 고맙네. 언제인가 금테모자를 쓰고 파킹장에서 딱지떼는 장군이되면 자네의 능청스런 수법도 바꿔야 할거야.」

「너무 급하게 서둘지좀마. 서두른 파킹치고 제대로 된것이 없거든. 별만아니라, 마누라 파킹을 잘못해 놓으면 이건 파탄이야!!」

「허 그런 파킹도 있어?」

「음, 그걸 잘해야 가정불화가 없어져!」

「심각하게 위대한 분이 폭 썩고 있구나. 그래서?」

「첫째는 남의파킹자리를 넘겨다 보지말어. 둘째는마누라가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사소한 일상성엔 모른척 하고 넘겨버려.」

「히야, 아까워. 한촌에서 벌금티켓이나 미리 붙였다가 시동걸 때마다 안으로 모셔놓는 당신, 참 사상의 꽃밭이야. 마누라파킹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게 얼굴이 붉어지는 부분은 없어, 응?」

「헤헤, 불순한 방향으로 날지마.」

「숨김없이 털어놓으라구. 마누라 파킹을 어케해야 봄눈녹듯이 홍겨워 진다구?」

「엑끼! 차고하나 없이노천에서 떨게하면서 벌금티켓을 받을때마다 엉뚱하게 발길질이야. 마누라도 차와 같아. 하자는 대로 다해줘도 칭찬과 격려는 커녕 시시콜콜하게 따지기만 해. 그러니 마누라 파킹이 제대로 될턱이 있어. 생명을 싣고다니는 차가 고맙거들랑 눈보라치는 곳이라도한결같이 따라다니며 보살펴주는 마누라가—.」

「알았다구 이 새끼야! 순전히 겉과 안이 다르면서….」

우리는 엉터리 이중창을 부르면서 친구집으로 향하였다.

「네가잘나 일색이냐, 파킹장이 좋아 일색이지. 전망중엔 키목걸이, 밤낚시엔 철사줄 옷걸이. 헤이 헤이 헤이….」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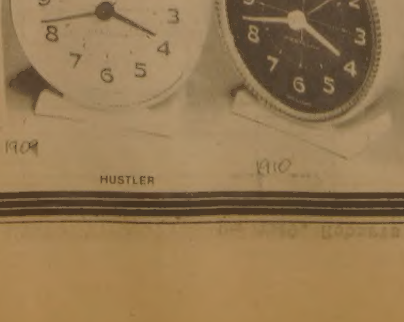
Special 'Alarming' Promotion

BUY ANY SIX CLOCKS — ONE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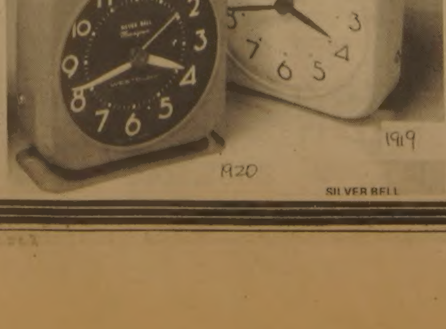
NEUCHATEL   CHANTILLY

Keywound Alarms

COLT   TWIN-BELL



HUSTLER



SILVER BELL

「NOOR ES 〈INTERNATIONAL〉에서 알립니다」

본사와 거래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지상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근간 많은 고객으로 부터 문의를 받은바 있는 본도매상의모든 상품의 가격 문제는 어느 도매상과도 비교 될수 없는최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더우기 치솟고 있는 가격의 변동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저선을 유지 한다는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곳보다 특별할인을 받고 있다는 점 잊지마시고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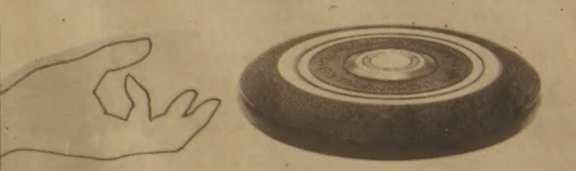
MASTER FRISBEE®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MA 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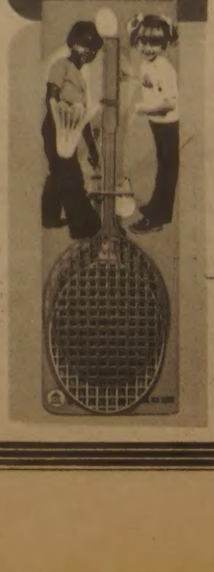
BUY SIX —ONE FREE

The Master Tournament Model designed for the aficionado. International Frisbee Association approved, weighing 150 grams with a diameter of 10.9168



NEW
increased size and weight for optimum flight and wind performance

*The Master Frisbee will be the Official Frisbee used in the International Frisbee Competition for qualified mas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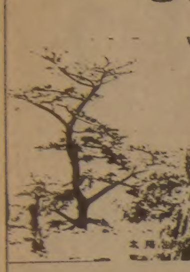


MA 930
JUNIOR BADMINTON
BUY 3 —2 FREE

〈여동원 수필선〉

이민 살이 〈2〉

— 장돌뱅이 —



닷새만에 열리는 시골의 이장 저장을 떠돌며 벌어 먹고 사는사람을 일러 부르는 속말이"장돌뱅이"다.

또 뺀질뺀질하고 냇가차돌같은자를 우리는 장돌뱅이같은 자라 부른다.

이장 저장 떠돌며 장사하다보니 근성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다 순박한 시골사람 눈에는 미꾸라지처럼 보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옛 우리 사람들은"사·농·공·상"이라해서 장사의 업을 맨 꽁무니에 붙여 천시했다.

샤일록처럼 인간미 찾기 힘들게 되는 장사꾼 세계를 유교의 윤리에 젖어있는 신비의 눈으로 바라볼때 천하의 상놈으로 보였을 것임은 당연한 순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이곳 우리 이민자의 주업이"사"는 물론 아니며"농"도"공" 도 아닌"상"이 되어버린 감이 없지않다.

그"상"중에서도 최전선 말단 소총수 장돌뱅이가아니될수 없다는데 긍지보다는 문제성을 들여다 봐야되지않나 싶다.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옛날처럼 장사의 업을 맨 꽁무니로 돌렸다간 굶어죽기 알맞지만 나는 장사를하는 첫날에 느낀 소감을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좀 벌는지 모르겠으나 이짓 오래하면 사람 버리기에 알맞는걸"

장사꾼이 천당가기는 낙타타고 바늘구멍 빠져나가기보다 어려울거라 느꼈던 것이다.

한말로 말해 장사는 돈버는 직업이며 이익 추궁의 업이다.

이익없는 장사, 돈못버는 장사는 장사가 아니다. 돈안버는 직업이 어디 있겠냐만 대부분의 다른직업은 우리같이 돈을 눈앞에두고 계산된 이익을 직접 만지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실력, 기술, 학식을 기초로한 직업적 자존심을 가지고 일한 결과에 의해 돈이 주어진다.

대통령은 국민을 돈으로 보지않는다. 전공은 기계를 돈으로 보지 않는다. 메카닉은 자동차를 돈으로보지않는다. 피아니스트는 악보를 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있는이 구멍가게 장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머리로 계산된 1전의 이익, 그것을 놓고 늘상 신경이 쓰여지고, 온 정력을 쏟으며 하루해를 보낸다.

순진하고 귀여운 재롱동이 코흘리개 아이서부터육신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늙으신 노인까지도 사람으로 대하기전 돈으로 계산된 직업적 상대로 봐야하는, 감상이니 양보니하는 이런 인간미 풍기는 짓을 허용못한채 돈을 벌어야하는 직업인 것이다.

비록 오늘의 세상이 살벌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지혜, 여유와 양보는 이 장사세계에서만은 전혀 웃기는짓이되고, 마는것이다. 그런 것을 신봉했다간 중국고사에 나오는"송양의 인(仁)"이 되고 말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7세기 송나라 양공이란 장수가 다 이기게 되어있는 전투에서

" 그것안돼, 군자는 타인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틈을타서 공격 않는다."

승자냐 패자냐, 죽느냐사느냐 하는 전쟁마당에서군자가 어떻고, 인이 어떻고 점잖을 빼다가 적이 완전히 진용을 갖춘후에 공격을 명령했으니 그 결과는 뻔하게도 송나라가 대패하고, 후인들은 조소하기를" "송양지인"이라했다 한다.

중공의 모택동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송의양공이 아니다. 전쟁에서 자비, 정의, 도덕을 생각하여 가책을 받을필요는 없다. 승리를쟁취하기 위해선 적의눈을장님으로, 적의귀를 귀머거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도 오늘 서양이라고하는 뭍설은 거대한 백인우선 자본사회에서 저 "송양지 인"의 패배의 맛을보지 않으려고 모택동식 작전으로 돈을벌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심만 내세웠다간 내일이면 빈주먹을 쥐고 깨끗이 가게를 물러나와야 한다.

이런 험하고 살벌한 장사의 세계에서 우리 한인이민자들 대부분이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할때 우리의 마음이 뺀질뺀질한 장돌뱅이의 인간미 없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한인교포하면 눈에 쌍심지가 켜지고 깍쟁이고, 양보심도 여유의맛도 없게되고, 이런 풍토가 1년, 10년, 100년 이어져 간다고 가정할때 유대인의대명사격인"샤일록"은 차라리 양반측에 끼게 되지않나 싶다.

우리는 오늘 돈을벌어야 한다. 이민이 불편하지 않기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물려받은 인간미의 유산이 풍부함을 돌이켜 가끔은 깨닫고, 귀한이 유산을 가꾸는 일에도 돈을 버는 정성만큼 정신을 기울여볼 가치가 "있지않나 점잖게 내 자신에게 타일러 본다.

영어로만 교육키로

미 교육성, 2중언어철폐

(LA지사) 미국연방교육성은 지난 1975년이래 실시되어온 이중언어 교육제도를 철폐키로 했다.

연방교육성은 현재 영어를 모르는 외국출신 아동에게 실시하도록 강요해온 민권정책을 수정, 앞으로는 이들에게 영어로만 교육시켜도 무방하다고 결정함으로써 이중언어교육을 사실상 철폐했다.

테렐·벨 연방교육성장관은「종전 교육이 너무나 이중언어 교육에 치중했다」고 지적하고「영어를 못하는 아동에게는 다양한 교수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중언어 교육제도 철폐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한 교육관계자는 캘리포니아의 이중언어 교육법이 연방정부의 교육지침보다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결정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즉각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중언어교육은 지난 1974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중국계 아동에게 이중언어로 교육하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시됐다.

당시 제정된 이중언어교육지침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아동에게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될때까지 그 아동의 모국어로도 교육시킬 수 있본록 되어있다.

결 혼 축 하

신랑:이영환씨장남 성기군
신부:신종걸씨장녀 영신양
때 :5월15일(토)정오
곳 :베엘교회(395 Old Yonge St. Tor)
주례: 최상봉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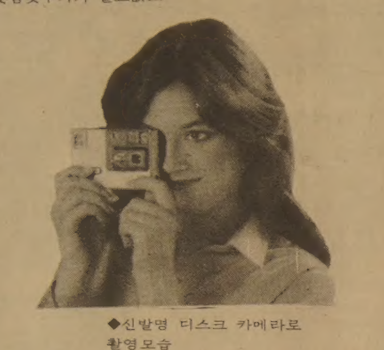
신랑 : 종현군(고성원장로 이남)
신부 : 순선양(유진우장로 사녀)
일시 : 5월15일(토) 낮12시
장소 : 토론토영락교회 126 O'Connor Dr.
주례 : 김재광목사

신발명 디스크·카메라

코닥회사가 개발

코닥회사는 포켓용 '코닥·디스크·카메라'를 새로 발명, 시판을 시작했다.

새 카메라의 특징은 15장짜리 특수필림을 사용, 거리·촛점맞추기가 필요없으며 샤터만 누르면 된다. 5년이상 보증되며, 값도 싸서 $70부터 여러종류가 있다.(불루어 거리의 '킴스카메라'에서 취급하고 있다.)



◆신발명 디스크 카메라로 촬영모습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38)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기이에 본당신부는 매일 어딘가 분주하게 다니고 있었다. 그분의 심각한 표정이 한편 내마음을 불안케 했으나, 부리노를위한 좋은소식이 곧 있을것 같은 예감을 나는 항상 갖고있었다.

어느날 저녁식사가 끝나자, 그분은 나를 자기 서재로 불렀다.

"교회일도 일종의 정치야. 교회일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분은 시가에 불을붙이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말을 중얼거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당신부님?"

나는 그분의 동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나는 어떻게하면 부리노를 위해 당신이 그처럼 원하는 가정미사를지내게 할 수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 왔소. 이 문제를 갖고 여러동료신부들과 상의해 봤으나 별로 좋은 의견이 없었소. 그렇다고 본당신부의 입장에서 주교청의 허가없는일을 내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일이고…. 결국 주교청에 정식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으나 보수적색채가 짙은 주교청의 사정을 잘 알고있는 나로서는 감히 용기가 나지 않았었소. 특히「유수 러 도와카논」(교회법전서)이라는 별명을가진 라뽀르디에 신부가 사목국장이고 보니 그에게 허가신청 해 봐야 교회법의 조항만 뒤적이며안된다고 할테고…. 그보다는 그와나 사이는 신학대학동기동창인데 그때부터 우리둘은 좋은사이가 아니었었어. 그럴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것은 아니었지만일종의 라이벌 의식속에 대립감정을 갖고 지내오고있구료.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내 선입견인지 모르나 그는 내 제안을 항상 옳게 받아주지 않고있소. 그래서 평소에 나와 각별한 친분이 있는 그레고알 보좌주교님께 직접 말씀드리려고 그분을 찾아뵈었소. 그분에게 부리노의 회개와 그를위해 당신이 감행한 모험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가정미사에 대해 허가를 말씀드렸더니 즉석에서 허락해 주십디다. 부리노를 회개시킨 당신의 공적을 치하하는 뜻에서 가정미사를 허락하신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오. 하여튼 너무나쉽게 허가해 주시기에 긴장감이 풀려 나 자신이 싱거워 보이더군요…. 이제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높주께 감사 바쳐야 합니다."

"수고하셨읍니다 본당신부님. 주교께서 쉽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나는 너무 기뻐 기이에 본당신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지요. 부리노를 위한 가정미사를 아무런 이유없이 허가해 주시는 주교님의 처사를 보고 교회의 쇄신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때에 주교는 한번쯤 해볼만한 사제직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그분도 기분이 좋은 듯 짙은 시가연기를 천정 한구석으로 날리며 명랑하게 말씀하셨다.

"제가 신학생때 이느날 한 교수신부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로마·카톨릭교회는 주교들의 교회다. 우리 교회의 현재 체제하에서는 주교가 되어야만 사제적 이상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도권은 주교들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남다른 능력과 지식을 가진 신부라 할지라도 신부는 자기의 뜻이 아닌 주교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협조자일 뿐이다.」

부리노를 위한 가정미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할 사제적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뭐 하나 결정할 수 없었지 않아요. 그런데 주교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시고, 이유없이 허락해 주신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보아 주교가 되어야만 우리 사목자의 양심에 비친 사제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읍니다."

(계 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든스포츠 598-3732

비·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Leon's

LEON' S 가구점

한국인 세일즈맨

조석민
KEVIN 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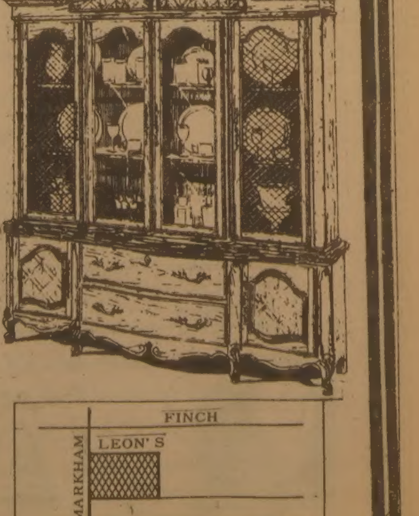
역사와 전통
캐나다 최대 규모의 WHOLESALER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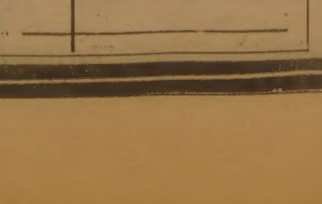
o FURNITURE
o CARPETS— 모든 카펱종류
o APPLIANCES—T.V.,전축,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DISHWASHER, 스토브, 마이크로 오븐, 후리저 등등 각종 전자 제품.

※오실때는 미리 회사나 집으로 전화 약속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저녁10시까지.

20 McLEVIN AVE.
(스카보로) (세파드 × 마캄)
B) 291—3818
R) 749—9687, 746—098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引責못지않은 責任수습"

政府、國會에 보고 宜寧사건 변명 여지없다

"경찰中立化 公安委 설립은" 질문
"重火器는 軍部隊보관協議" 답변

국회는 7일하오 본회의를 열고 劉彰順국무총리와 盧泰愚내무장관으로부터 宜寧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뒤 韓英洙(民韓) 柳尙昊(民正) 李朱鎔의원(無)이 나서 이사건에 대한 對정부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對정부질의를 계속한다.

劉彰順국무총리는 보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가진 현직경찰관이 수많은 주민들에게 총기를 亂射、殺傷시킨 행위는 무슨 이유로도 변명될수없으며 용납될 수없는 참으로 개탄스런 蠻行이라 하지않을수없다』고 전제, 이처럼 끔찍한 한사건이 일어난데대해 『의원및 국민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사건직후부터 전국의 安保태세를 점검중이라면서 『현재각지의 결과로는 軍의동원태세가 아무런 虛點없이 完璧한 태세에 있음을 확인했다』고밝혔다.

劉총리는 또 『이번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소상히 규명, 국민앞에 밝히고 항구적인再發방지책을 세우기위해 검찰 경찰 軍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현지합동조사반을 파견, 현재 그조사결과를 면밀히분석중』이라고 밝히고 곧 그 대책이 강구될것이라고 말했다.

盧泰愚내무장관은 보고에서 『예비군 무기관리의 철저를 기해 방위병에게 哨兵과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한편 수류탄등 중화기는 지역 軍부대에 이관하여 보관하는 문제를 국방부와협의하겠다』며 『이사건을 계기로 치안행정개선을 위한 企劃團을 구성、경찰인사와 교육및 기강확립등 종합대책을 단시일내에 수립, 신뢰받는 경찰像정립에 전력을 다하겠다』고말했다.

그는 『宜寧사건후 현재까지 13억2천1백만원의 義捐金이 답지해 있으며 곧 성금관리위원회를 구성, 보다 효율적인 사용계획을 수립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보고에 이어 對정부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宜寧사건과 관련, 治安保태세의 확립과함께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경찰의 士氣진작과 對民신뢰회복대책, 그리고 都農간의 격차해소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의원은 禹순경이 犯行을 저지른 원인과 경찰과 예비군이 저지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고 묻고 人事亂脈을 방지하기위해 경찰관에 대해 정밀 適性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不適格者를 배제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강구하기위해 立法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만일 北韓의 정예특수부대가 우리후방지역에 침투했다고 가정한다면후방 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느냐』며 또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예비군의 무기고를 탈취하려했다고 한다면 그와같은 허술한 관리로 사전에 방지할수 있었다고 보느냐』고 對策을 물었다.

특히 野黨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정부가 治安安保태세에 엄청난虛點을 드러냈다』고주장하고 새정부가 정의사회를구현하는 道德정부라면 內閣은宜寧사건에책임을지고 물러날 용의가없느냐고 추궁했다.

이들은 또 ▲경찰中立化를 위해 경찰기구를 公安委員會와 公安廳으로 獨立시킬용의는 ▲빈번한 예비군의 무기도난사건대책 ▲宜寧사건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後送이늦어져 人命피해가 늘어났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유족과 희생자에대한 배상및지원 對策등을 물었다.

이들의원은 이번사건은 농촌푸대접에도 일부 원인이있기때문에 僻地를없애기 위한 농촌개발을 촉구했다.

특히 韓英洙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가 지니고있는 일반적풍조의 일단이기때문에중요한 의미가있다』고주장하고 『국회가 이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할때 또다른 宜寧사건이 再發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劉彰順국무총리는 自進辭退를 추궁한질의에 『宜寧사건은 그성질로 봐서 건국이래 가장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본인을 위시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있다』면서 『지금의 심정은 물러서는것이 쉬운것이지만 引責사퇴못지않게 책임지고 사건수습을 위한 一念으로 일하고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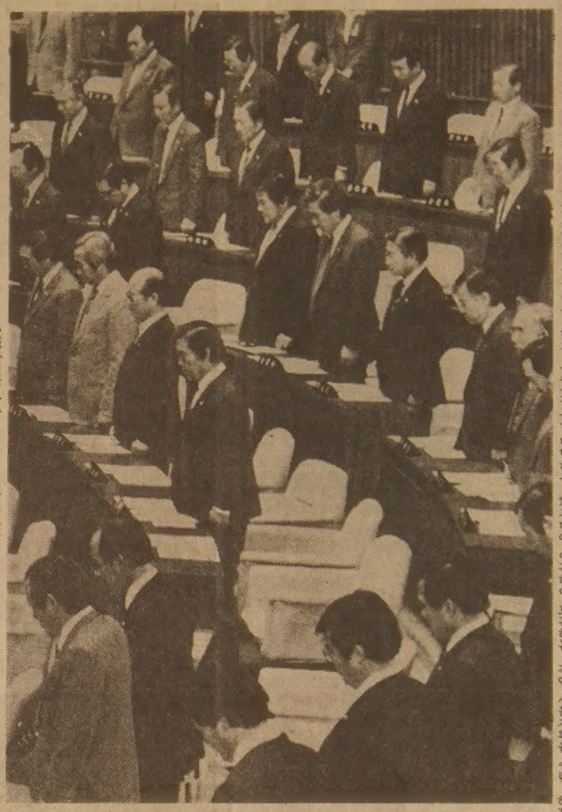
劉총리는 『사건지역에 1억원이상의 투자계획을 세우고있다는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고 『公安위원회를 설치하는것은 책임성과 능률성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못하기때문에경찰은현행대로유지하는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責任소재 계속 규명 경관 僻地수당 지급"

盧內務 답변

盧泰愚내무장관은 답변에서 『현재 신임순경의 경우 교육기간이 8週간으로 돼있는데 교육시설이 확충되는대로 6개월~1년으로 연장, 윤리도덕에 주안점을둔 정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이어 ▲장기근속순경의 경우 자동승진제도를 마련하고 ▲都農간의 순환근무제를 실시토록 작업중이며 ▲가능한 연고지배치를 고려하고 ▲벽지수당지급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사건의 추가引責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제도적인면과 직무적인 면에서 감사를실시, 문책사유가 발견된다면 가차없이 문책하겠다』고 밝히고 『경찰업무집행관리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묵념올리는 沈痛속의「宜寧國會」 宜寧사건을 다루기 위해 7일하오 문을연 제112회 임시국회는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 어느 국회보다 침통했다. 對정부질의의 砲門을연 選良들이나 [illegible]와함께 답변에 나선 각료들도 한결같이 이 엄청난 사건에 罪責感을 느끼는듯 숙연한 분위기였다.

계속되는 直擊彈으로…

資金難기업에 「긴급貸出」

各금융기관에 指示 私債경색、不渡 막게

재무부는 私債시장의 경색에 따른 업계의자금난을 완화해주기 위해 자금사정이 어려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대출방식으로 자금을지원해주라고 한국은행을 통해 전금융기관에 시달했다.

與信限度·支拂준비금 구애받지 말고

"私債市場 전면적調査說은 事實無根"

재무부는 건전한기업이 사채를 구득하지 못하여 일시적인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위험이 있을때에는 주거래은행이 책임지고 여신한도(DC)나 지불준비금등은 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지시하고 지원결과를 한은에 보고하면 한은은 주거래은행에 소요자금을 차입해주도록 이미 조처한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근본적 어려움이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산업구조 개편방침에따라 국제경쟁력이 없고 회생가능성이 없는기업은 이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하기로했는데 정리대상에 들어간 6~7개업체는 긴급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8일 일부에서는 사채시장 전면조사설이 유포되고 있으나 사채시장에대한 전면조사는 사실무근이며, 계획된바도 없으며 다만 이철회, 장영자 관련사항만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발표했다.

李揆成 재무부재정차관보는 이날 이철희 장영자씨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있으나 그사건이 단자·私債시장과 증시에 영향을줄우려가있어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긴급대출지시를하여 사채파동이 정상화될때까지 건전한 기업의 부도를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증권시장은 8일부터 안정을되찾는 기미를 보여주고있어 2~3개기업을 제외하면 큰영향이없을것으로본다고밝혔다.

李哲熙·張玲子씨부부 拘束

★관련기사[illegible]면

日、헌법개정안제출 自衛위한 交戰權등

【東京7日=宋李彬특파원】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집권자민당은 7일 헌법조사위원회 제4분과위원회에서 자위를 위한 교전권을 인정하는 모리(森淸) 중의원의원이 작성한 헌법개정시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전쟁을포기하고 군대를 갖지않도록 규정한 현행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운동은 구체적인 형태로 한발 내디뎠다.

모리의원의 시안은 헌법제9조1항에 규정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포기한다는 침략전쟁의 포기규정은 그대로 두되 제9조2항의 군대를 갖지않는다는 조항을 삭제, 자위대의 합헌성을 명기했다.

이밖에 현행자위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위대의 지휘권과 개전및 강화권을 내각총리대신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돼있다.

자민당이 헌법개정시안을 정식으로 제출함으로써 평화헌법개정을 에워싼 일본 여야의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英도 유엔仲裁案 수락 포클랜드 終戰노력 진전

대처"軍事行動 즉각中止 의미하는건아니다"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6日AP AFP=聯】 아르헨티나가 지난 5일 포클랜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한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의 중재안을 수락한데 이어 영국도 6일 이를 받아들인다고 발표,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양국간의 무력충돌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평화노력이 점차 결실을 거두고 있다.

마거리트·대처수상은 이날상오 전시각의를 소집한데 이어 하원에 출석,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즉각적인 휴전과 ▲분쟁종식을 위한 협상개시 ▲양국군의 즉각 철수 ▲유엔평화유지군의 포클랜드 주둔을 내용으로하는 페레스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을 『협상의 토대』로서 수락한다고 발표했다.

대처首相은 또 英國政府가 페레스사무총장의 중재안을 수락하는것은 결코 포클랜드근해에서의 즉각적인 전투행위중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영국기동함대의 『군사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農水産委의원 東南亞시찰후歸國

국회農水産委의 李秉穆 鄭輝東 洪禹俊(이상民正) 徐鍾烈(民韓) 盧泰克의원(議政)등은 약2주일간 東南亞의 농업실태를 살펴본뒤 6일하오 귀국했다.

高貞勳 新社黨총재 伊사회당議員 접견

高貞勳新社黨총재는 7일낮 訪韓중인 알베르티의원등 3명의 이탈리아社會黨소속 하원의원일행과 兩黨간의 제휴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문제등에 관해 논의했다.

北傀、포크랜드關聯 美·英격렬非難시작

【서울=聯】 北傀는 최근포클랜드의領有權을둘러싸고격화되고있는 英ー아르헨티나간의戰爭에 언급、英國을 격렬히 비난하고나섰다.

北傀는 6일 黨기관지 勞動신문과 중앙放送을통해 英國이 그동안 말비나스諸島에 대한『非法的强占』을 계속해 왔다』고 말하고 이번 英國의 이 섬에 대한 공격은 『강도적 침략행위이며 세계평화애호인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北傀의 선전기관들은 이어 美國이 이 문제에 介入、英國의侵略을조장하고있다면서 격렬한 對美비방과 함께 英國軍의 이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하기도했다.

李梓昇특파원 現地에
和·戰갈림길 포클랜드戰場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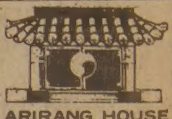
◇李梓昇 특파원

한국일보社는 지난달2일 포클랜드紛爭이 발생한 이래 英國의 南조지아島탈환, 포트스탠리空港폭격, 로 현지에서의 戰況은 물론 이번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양국의 순양함 구축함피침등 숨한 인명피해와함께 격렬하게 전개되고있는 英-아르헨間 포클랜드戰場을 취재 보도하기위해 7일 본사 李梓昇특집부장대우를 아르헨티나에 急派했습니다. 李특파원은 이미 7일하오(한국시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 곧바로 취재중입니다. 앞으로 생생하고 신속히 보도할것입니다.

地平線

미국의 경제학자 새뮤얼슨은 일본이 두개의 얼굴을 갖고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흠투성이의 일본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비좁은 집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일본의 한가족 평균 주거면적은 24평이 채못되는 8백50평방피트로 미국의 절반을 약간 웃돌정도다. 일본보다 인구밀도가 큰 벨기에도 일본보다 훨씬 낫다. 노동시간도 미국에 비해 훨씬 길다. ▼이밖에도 일본사람들은 소득의 거의 30%를 먹기위해 쓰지만, 미국사람들은 20%밖에 쓰지않는다. 근로자들의 상당수는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에 매달려있다. 그렇긴 하지만 일본의 경제적성공은 놀랄만 하다. 50년엔 미국의 13분의 1이었던 개인소득이 80년엔 약5분의 4로 껑충 뛰었다. 자동차와 강철산업은 세계최고요,반도체나 컴퓨터에서 미국에도전하고있다. ▼새뮤얼슨은 일본이 미국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놀랄만한 성공의 비결을 기업의 특질에서 찾고있다.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코스트를 낮추고, 판매를 늘리는데 공통된 이해를 갖고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요즈음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일본식 경영의 본질에 새뮤얼슨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것이다. 기업에 대한 종업원의 충성심이 그것이다. ▼근로자만을 떼어 놓고 본다면 부지런하기로 이름난 한국의 근로자가 일본에 뒤질 건 없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1월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근로자들은 1주 53.1시간을 일해서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일본은 40.4시간이고,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노르웨이는 28.4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근로자들은 일을 많이 하는 반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일체감은 형편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다. 생산성본부가 내놓은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종업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3년미만이 16%, 3~5년이 44%로 5년미만이 전체의 55%라고한다. 그래서 10년미만이 전체의 90.4%, 10년이상은 9.6%였다한다. ▼일본의경우(78년) 10년이상이 자그마치 81.5%나 된다. 지난2월 경제기획원 조사로는 우리의 근로자들은 한직장에서 평균 2년9개월 좀 넘을정도밖에 붙어있지 않는다고한다. 직장을 자기집처럼 생각하는 일본과 우리의 차이를 실감하게 보지 않을수 없다. 작년 3월 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조사결과를 다시한번 반성해야될 것이다. 전국광공업근로자의 53%가 봉급은 적더라도 「인간적인 대접」을 원했다는 사실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마야 미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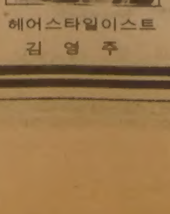
개업인사 및 특별봉사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가 블로아에.미용실을 새로 개업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특별봉사로 성심 성의껏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꼭 찾아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개업일 : 1982년5월1일
세일기간 : 5월초~6월말까지(2개월간)

HAIR 부문
*캇트, 파마및 스타일 $25 & up
*캇트 및 스타일 $9
*샴푸 및 스타일 $8
*머리염색 $12 &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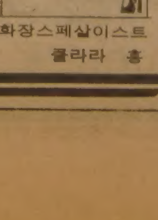
MAKE UP 부문
*신부화장
*파티화장
*스테이지화장
*심는 속눈섭 전문
*신부드레스 대여



헤어스타일이스트
김 영 주

※머리가 상하신분 또는 헤어 스타일에 항상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은 한번나와 주세요.

63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서울여행사2층)
588-1480(B) 243-8026(R)



화장스페샬이스트
클라라 홍

신 발명품 : 코닥디스코카메라
⊙샷타만누르면됩니다
● 특수필림(15장까지)
● 5년이상 보증
● 완전자동화(후레쉬) 거리, 촛점필요무)
● 저렴한 가격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New shipment, just arrived!

Remarkable KODAK disc 4000 Camera

英은 포클랜드에 上陸한다

군사專門家의 분석

『포클랜드 해군봉쇄작전을 수행하는 영국군사력의 우위는 구축한 셰필드호침몰의 충격으로 깨졌다』고 미국의 저명한 군사평론가 드루·미들턴은 말했다.

時間끌수록 戰況불리

미들턴은영국해군의공해상봉쇄는 결과적으로 무너진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군은 그때문에 군사적으로 딜레머에 빠져있는 것이다.

셰필드호의 침몰로 포클랜드주변에서 작전중인 영국함대가 미사일공격에는 취약점이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협상이 급진전을 보이지않는한 영국의 선택은 상륙작전밖에 없다는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대서양의 추운 겨울날씨가 영국기동함대를 위협하고있어 시간을끌면 끌수록 영국에 불리해진다. 되여 영국 공군수송이며

현재 저명한 군사분쟁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튜어트·메나옴씨는 영국군은 『해안에 상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있다』면서 『외교적으로 해결될 기미가전혀보이지않는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들은 현재 영국이 취할수있는 군사조치로써는 東포클랜드島에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기앞서 방어상태가 취약한 西포클랜드에 「제한적 상륙작전」을 전개해 공격거점을 확보하는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西포클랜드서안쪽은 아르헨티나전투기들의 공격반경에 제약을 주기때문에 상륙작전에 유리하다.

현재 포클랜드群島에 주둔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병력은 총7천여명으로 그중 5천4백여명이 東포클랜드에 집중해있다.

地域은 「폭스베이」가 有力
道路등 갖춰 長期戰 가능

군사전문가들이 분석하고있는 西포클랜드의 상륙후보지점으로는 ①폭스베이 ②남서쪽의 소도 웨델섬이 꼽히고있다.

폭스베이는 포클랜드水路를 사이에 두고 東포클랜드와 맞보고 있다는 장점외에 도로가 비교적 정비돼 있어 상륙후 병참기지로 절호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병대에 의한 상륙에앞서 함포사격을 목표지점에 가하는것은 작전의 상식이기 때문에 폭스베이에 대해서도 작전의 순서에 따르면 영국함대의 대량포격이 있을 공산이 크다.

다른 상륙후보지로 꼽히는 웨델섬은 천연의 양항으로 역시 영국군의 보급기지로 안성 마춤이다. 다만 웨델섬은 포트스탠리로부터 직선거리로 약2백㎞나 떨어져있고 육상수송로도 분리해서 지리적 조건은 폭스베이에 못미친다.

이처럼 상륙후보지가 西포클랜드에 편중되어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西포클랜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면에는 진짜 공격목표를 감추려는 의도적인 정보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또하나의 유력한 상륙지점으론 포트스탠리공항과 함께 영국군의 폭격을 당한 東포클랜드의 구스그린공항이 지적되고 있다. 이곳에서부터 포트스탠리까지는 60㎞. 구스베이에 상륙 후 공항을 즉시 접수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이에 비해 西포클랜드에는 제트전투기기지로 사용할수있는 비행장이 없다. 그러나 영국함대는 조립식 활주로를 미리 준비해놓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영국군이 西포클랜드에 상륙, 양항과 병참기지, 전투기 비행장의 3요소를 갖춘다면 장기전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수 있을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영국의 西포클랜드 상륙작전은 존·우드워드 해군제독휘하 1천5백명의 해병대 병력을 동원해야 하기때문에 영국 군사력을 분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영국군은 앞으로 3일안으로 징발된 캔버라여객선편에 2천5백명이상의 특공대와 공정대병력이 보강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병력이 장비해야할 야포、중화기、특수헬機및 20여대이상의 해리어 수직 이·착륙전투기를실은 후속함대가 전쟁수역까지 도착하려면 아직도「수일」이 있어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고 영국함대의 더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영국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상륙작전에 많은 인명이 살상될경우에 아르헨티나 순양함벨그레노호의 침몰때와 같이 국내 외국여론의 지탄을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다른 선택은 8대1로 우세한 아르헨의나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기위해 아르헨티나 본토와 공군기지를 폭격하는것이다. 본토의 공격은 전면전쟁을 유발할뿐아니라 국제적으로 큰파문을 일으킬것이기 때문에 영국내에서 반대여론이 높다.

영국군은 이밖에도 공항사용불능으로 보급을 받을수없는 포클랜드의 아르헨티수비대가 스스로 항복할때까지 장기적으로 봉쇄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영국이 셰필드격침의 계기로 상실한 군사적 주도권을 회복할 계획을 곧 실행할것은 틀림없다. 【申相禎기자】

英國民들은 休戰을 택했다

포클랜드 通信

撤軍은 바라지않아

○…영국사람의 과반수가 휴전을 원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런던의 한TV방송이 7일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1%가 휴전을, 41%가 군사작전의계속을 원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클랜드로부터 영국군이 철수해야한다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다.

한편 이코노미스誌 조사에 따르면 1주일전 76%까지이르렀던 대처수상에대한 지지도가 이번주들어 71%로 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엑소세」追加구매

○…아르헨 군당국은 英구축함 셰필드號를 공격할때 사용한 엑소세미사일을 추가구입하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7일 보도. 미국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이 신문은 프랑스제 엑소세미사일이 개당 20만달러나하는 값비싼 무기이기 때문에 아르헨은 6개밖에 보유하지 못했었는데 셰필드號격추때 그중 2개를 써 4개밖에 안남았다고 보도.

프랑스가 對아르헨 무기판매금지조치를 취함에따라 아르헨은 프랑스로부터 이 미사일을 구입한 다른 15개국 가운데서 구매선을 찾아야할 입장인데 리비아가 가장 유망시되고 있다.

포群島에 개인傳言

○…영국의 BBC방송은 포클랜드군도가 지난 4월2일 아르헨티나군에 의해 강점된 이래 이군도의 주민들에게 총 2천건 이상의 개인전언을 방송했다고 5일 발표.

BBC방송은 『포클랜드를 부른다』는 이 대외방송프로를 통해 『아르헨티나 점령하의 1천8백명의 주민들에게 친구와 친척들로부터의 소식을 야간에 방송했다고.

이프로의 편집인 제너비브·에켄슈타인씨는 이 방송을통해 『어린 아이들은 포클랜드군도에 살고있는 조부모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으며 조부모들은 군도에 살고있는 손자들을위해 애정어린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生還된 벨그레노 승무원 家族품에 — 英國잠수함에의해 지난2일 격침된 아르헨티나 순양함 헤네랄·벨그레노號의 한승무원이 구조된후5일 아르헨티나 남부의 바히아·블랑카항에 도착, 가족들과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있다. 【바히아·블랑카 (아르헨티나) 6日AP電송=聯合】

英 2억달러 손실

○…영국은 포클랜드전쟁으로 최소한 2억달러상당의 직접적인 재산손실을 당했다. 아르헨의 공격으로 격침된 구축한 셰필드號는 제작연도인 71년 기준가격으로 5천만달러의 건조비가 들었다는데 그간의 인플레를 감안할때 지금 건조하자면1억5천만~1억8천만달러가 들어야한다고.

또 1대는 격추되고 2대가 실종된 최신예 전투기해리어機는 대당가격이 약1천만달러라고.

宣戰布告없는 戰爭

○…영국과 아르헨티나 어느쪽도 포클랜드분쟁에 있어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지난4주동안 포클랜드주변에서 벌어진 군사행동들은 이미 제네바협정에 규정된 전쟁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다같이 제네바협정가맹국이다.

아르헨티나는 선전포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니카노르·코스타·멘데스외상은 아르헨티나가 영국과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거리트·대처영국수상과 영국외무성은 전시상태는 존재하고있지않다고 말해왔으며 사우드·조지아섬 탈환시 생포한 1백94명의 아르헨티나군 포로들은 『전쟁포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다.

제네바협정은 해전, 전쟁포로의 대우, 전시하의 민간인보호및 전장에서의 부상병과 병상의 처치등을 규정하고있다.

中南美에 反美고조

○…포클랜드 위기에서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영국을 지지하고 나선것을 계기로 라틴아메리카전역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관측통들은 포클랜드사태의 결과로 미주대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이를 틈타 소련과 쿠바공산세력의 침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기위해 최근 몇몇 라틴아메리카가원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포클랜드위기에대한 미국의 입장을 해명하고 남미지원공약을 재다짐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美·中共 "중대한 會談"
부시·鄧 武器판매등도

◇부시、杭州서 건배 — 중공을 방문중인 조지·부시美부통령이 6일첫기착지인 杭州에서 浙江省長 李豊平과 건배하고 있다. 【杭州6日AP=聯合】

【杭州 (中共) 6日頭=聯合】 중공을 방문중인 조지·부시 미부통령은 현재 관광을겸해 휴식을 취하고있는 杭州에서 7일 北京으로날아가 중공의 실권자 당부주석 鄧小平을비롯한 중공지도자들과 미·중공관계에관한 「중대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 미국대변인은 부시부통령이 北京인민대회당의 환영식에 참석한후 부수상萬里와 첫회담을갖고 외상黃華와 보다 구체적인 회담을 가진후 8일 鄧小平과도 따로 만날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부통령과 중공지도자들과의 회담은 미·중공 국교정상화이전 미국이 중화민국으로 승인했던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계속적인 무기판매문제에대한 중공의 점증하는불만에관해 중점 논의할것으로 보인다.

比、최악司法파동
大法판사12명 스캔들 사표

【마닐라6日UPI=聯合】 필리핀은 외유중인 2명을 제외한 대법원판사12명 (대법원장포함) 이 최근 폭로된 사법시험부정스캔들과 관련,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6일 발표됨으로써 앞으로 사법기능이 마비될 경우 이나라에 일대혼란을 초래할수도 있는 사상최악의 사법파동에 휘말렸다.

정부대변인은 페르디난드·마르코스 대통령이 엔리케·페르난도 대법원장등 12명으로부터 사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으나 사표의 수리여부는 언급치 않았다.

이번 스캔들은 사법시험위원장인 아메르피나·테레라 대법원판사가 동료대법원판사아들의 사법시험점수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위원장직을 사임함으로써 발단됐다.

헝가리 貿易商社人 東京서 의문의變死

【東京7日=宋孝彬특파원】 헝가리상사원인 사보·요셉씨(헝가리무역상사국제부장·37)가 東京에 있는 헝가리대사관 관저에서 의문의변사체로 발견돼 東京警視廳이 7일 수사에 나섰다.

헝가리대사관측은 돌발적인 병으로 급사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경시청은 급사한 헝가리상사원의 양어깨와 팔에 타박상과 화상을 입은것으로 보아 망명하려다실패, 살해된 것이 아닌가 보고 수사하고 있다.

요셉씨는 지난4월18일 약2주간의 예정으로 친구와함께 일본에입국、일본종합상사와 대학연구실을견학했었다.

메아리
赤十字의 새길

유엔 개발계획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서는 매일 5만명이 먹지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세계인구의 4분의1이상이 먹을것을 충분히 갖고있지못한 것이다. 유엔 리스트에는 31개국가가 아직 「저개발국가」로 올라있다. 또 개발도상국의 5명중 3명이 안전하게 마실수있는 물을 구하지 못해 모든 질병의 80%이상은 이 나쁜 물때문에 발생한다는것이다 (세계보건기구분석).

세계는 최근들어 급속도로 「도시화」해 가고 있다. 사회변동과 경제불안의 가중은 사람들의 긴장、폭력、음주、흡연、약물사용을 무섭게 증대시키는중이다. 이외에도 세계에는 문맹、유아사망、노인、육체적·정신적장애자의 문제등이 도사리고 있다.

국제赤十字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십자가 하는 일」로 지정하여 만연하는 고통으로 부터 인류를 해방하고 사회를 구제하기위해 봉사의손길을 뻗겠다고 나섰다. 말하자면 赤十字운동은 전세계·전인류의 것으로 되고 있다.

8일은 35회 「세계 적십자의 날」 이다. 이날은 적십자 창시자인 스위스의 앙리·뒤낭의 1백54회 생일이기도 하다. 국제적십자의 회원국들은 각기 처음에는 戰傷者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였으나 오늘은 그활동의 대부분이 災害구호、보건、복지등에 쏠리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서로돕는 이웃, 봉사하는 적십자」의 구호아래、전국 12개지사를 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한다. 농촌과 도시영세민에게 눈을돌려 사랑과 봉사의활동을 벌일 참이다. 그 봉사주역은 5백만명의 회원、1만명의 봉사원、20만면의 청소년단원들.

또 올 사업목표로 재해구호물자 1만6천4백30세대분의 비축과 헌혈운동의 확대、보건사업확충 (병원선의 도서 순회진료、언어치료、영아보호)、노인을위한 봉사계획개발、국제구호활동참여등을 책정하고 있다.

그가운데서도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노력 계속이나 공산권 (중공) 심인사업과 교포귀국주선사업의 확대는 모두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게한다. 해마다 적십자사가 많은실적을 남겼어도 이사업만은 별다른큰성과를 올리지못해왔다 하더라도 분명 계속돼야할 사업들이다.

『모든 나라, 각계각층의사람에게 애원하노니모두할수있는 한계에서 서로 도울수 있는 좋은 일에 참여토록 애쓰라』고한 뒤낭의 말은 특히 북한적십자가 새겨들어야할 대목인듯하다.

國際뉴스 ABC
中共 政治구조 어떻게돼있나
執行·사법·검찰등으로 構成

—최근중공에서정부기구가 크게 바뀌었다는데 중공의 정치구조는 어떻게돼 있읍니까.

▲중공의 국가기관은 흔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분되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및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집행기관 (국무원및 지방각급인민정부) 사법기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특별인민법원) 및검찰기관 (최고인민검찰원, 특별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중 중공정치의 중심이 되는 중앙행정기구인 국무원과 의결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입니다.

국무원은 내각과같은 기능을 하는것으로 총리 (수상이라고도 표기) 1명과 부총리 2명, 41개部및 위원회로 조직되어 국가의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으로 각省과 자치구 직할시 인민해방군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능은 대부분국가들의 의회와 비슷 합니다.

흔히 全人代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1기의 임기는5년이며 1년에 한차례씩전체회의를 열도록 되어있으나 꼭 그대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全人代전체회의가 열리지않는 동안에는 全人代상무위원회가 조직되어 全人代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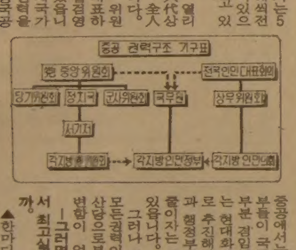
全人代상무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상 국가를대표하며 현재 위원장은 섭검영 (葉劍英) 이 맡고 있읍니다. 그러나 1당독재국가인 중공에서 사실상권력을 보유하고있는 것은 중국공산당으로서 국무원이나 全人代는 당에서 결정된내용을 형식적으로 승인, 시행하는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읍니까.

▲중국공산당의최고권력기관은 중앙당 중앙위원회로서 당의 전반적인 활동에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2백여명에 달하는 중앙위원들은 전당대회격인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중앙위원회에서는 당주석 부주석과 정치국원및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선출합니다.

현재 당주석은 호요방 (胡耀邦) 이며 부주석은 섭검영, 등소평 (鄧小平) 조자양(趙紫陽) 이선념(李先念) 진운 (陳雲) 화국봉 (華國鋒) 등6명입니다.



중공에서는 과거 공산당간부들이 국무원의 요직을대부분 겸임했었지만 최근에는 현대화정책을 능률적으로 추진해나가기위해서 당과 행정부를 분리, 겸직을 줄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공의 실질적인 모든권력이 1차적으로 공산당으로부터 나오는 데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면 지금 중공에서 최고실력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당부주석인 등소평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직책상으로 본다면 당주석인 호요방이나 총리 조자양은 모두가 등소평의 심복들이기 때문입니다.

등소평은 스스로 당주석자리를 차지할수도 있었겠지만 고령간부들과 반대파들을 몰아내고 후계자들을 양성한다는 속셈에서 국무원 부총리자리도 물러나고 당부주석자리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중공에서는 국가원수격인 국가주석을 새로만들려는 움직임이있어 등소평이 이자리에 취임할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읍니다.

波、反政시위 6일
군중·民兵隊 충돌

【워싱턴·바르샤바6日AP=聯合】 지난1일의 메이데이(노동절)를 계기로 시작된 폴란드인들의 반정·반계엄시위는 6일에도 계속돼 발트해 연안의항도 슈체친시에서는 시위군중들이 이들을 저지하려는 민병대간에 충돌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체친에서 돌아온 여행자들은 슈체친시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군중들의 시위가 연3일째 계속되고있으며 6일에는 시위군중과 민병대가 충돌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바르샤바의 소식통들은 슈체친의 남부의 크라코우와 바르샤바간의 전화통신망이 끊겼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한정보소식통은 소련수송기들이 슈체친에 군대를 수송했다고 말하고그러나 이는 새로운 군대를 투입한것이 아니라 이미 폴란드에 배치돼있는 군인들을 이동시킨것에 불과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주초 폴란드保安軍과 자유노조(솔리다르노스크) 지지자들간에충돌이 발생한이래 폴란드에주둔하고 있는 蘇聯軍2개기갑사단이 이동했음이 탐지했으나 이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우주遊泳 시도
콜럼비아 5차飛行

【워싱턴6日AP=聯合】 美有人우주왕복선 콜럼비아號의 우주조종사들은 오는11월로 예정된 제5차비행시 우주유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美우주항공국 (NASA)이 6일 발표했다.

NASA측은 콜럼비아號의 제5차우주비행이자 최초의 상업비행에는 밴스·브랜드선장과 로버트·오버마이어, 윌리엄·러노아및 조셉·앨런비행사가 탑승하며 이가운데 앨런과 러노아비행사가 우주유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SA는 또 콜럼비아號가 오는11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작한 통신위성을 지구궤도에 운반하는 임무도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海外토픽

運動과 IQ는 有關
★日서 쥐실험에서 實證

【東京7日=宋孝彬특파원】 적당한 운동을 한 산모는 튼튼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東北大 영양화학과 기무라(木村)교수연구팀이 흰쥐1천마리를 대상으로 2년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운동을 시킨 흰쥐에서 난 생쥐는 심장 간장 작기능이 활발하고 생명력이 강할뿐아니라 뇌의 발달이 보통생쥐보다 2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구팀은 임신한 흰쥐를 하루평균 3~4천회씩 다람쥐바퀴로 운동을 시킨결과, 이 흰쥐에서 낳은 생쥐는 생명력테스트에서 70마리가 전부 생존한 반면에 운동을 하지않은 흰쥐에서 낳은 생쥐77마리중 45마리만이 살아남아 58%의 생존율을 보였다.

中共학생 美첫博士
★관계정상화이후 一號로

지난79년 미·중공관계정상화이후 미국에 유학한 중공학생들중 제1호박사가 탄생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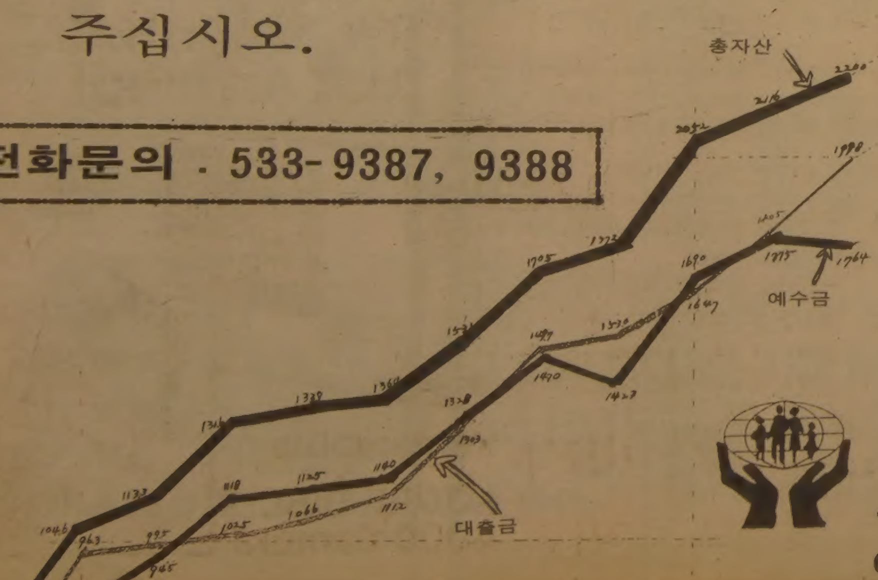
메릴랜드대학에서 물리학을 연구해온 안·지·강씨(41)는 좋은 성적으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오는14일 졸업식에서 물리학박사학위를 받게된다고 대학당국과 워싱턴주재 중공대사관이 확인했다.

중공에서 대학을졸업한 그는 79년9월 중공유학생제1진으로 미국에 왔다. 【컬리지·파크 (美메릴랜드州) =AP】

한국일보 533-2361

약진하는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은 **파격적**인 **예금금리**로써 봉사하고 있읍니다.많이 애용하여 주십시오.

전화문의 · 533-9387, 9388



정기예금 Term Deposit	한인신용조합	일반은행	
		$5천미만	$5천이상
30일	14.5 %	13 %	13.5 %
90일	15. 25%	13.75%	14.5 %
180일	15.5%	13.75%	14.75%
1년	15.75%	14.75%	15.25%

1. 한인신용조합은 $5,000미만도 차별없이 우대합니다.
2. $100,000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금리를 적용합니다.

보험과 법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 BLOOR W. TORONTO M6G 1L1 ☎: 533-9387, 9388

40만弗 도피·40만弗 은닉

구속된 李哲熙씨 부부 美加州에 부동산投資도

담보어음 決濟못하자 들통

일단「外換관리법위반」혐의

대검중앙수사부는 7일 大和산업 대표 李哲熙씨(59·전유정회、소속국회의원·서울江南區淸潭洞2블록58의2)와 李씨의 부인이며 같은 회사 명예회장인 張玲子씨(38·불명 普覺行) 부부를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李씨부부는 美國여행중이던 지난 3월17일 로스앤젤레스 센트럴·플라자호텔에서 재미교포 문왕산씨로부터 자신들이 합작추진중인 캘리포니아소재 농장경영에 준비자금으로 필요하다면서 40만달러를 차용、이를 당국에신고하지않고 美國의 모은행에 은닉해둔 혐의를받고있다。

◇李哲熙씨

◇張玲子씨

"현재로선 詐欺罪 해당안돼" 檢察발표

이들은 3월26일 귀국한후 같은달 28일정오 자기집에서 40만달러에 해당하는 한화3억2천만원을 한국에사는 문씨의 어머니 서향연씨(55)에게 대상(代償) 지급(속칭 환치기)했다는것。

이들은 또 지난79년10월부터 12월까지 10여차례에걸쳐 서울시내 암달러상들로부터 미화40만달러、일화8백만엔을 바꿔 자기집2층 철제캐비닛속에 숨겨두었다가 압수됐다。

검찰은 외국에서 외화를 빌어쓰고 국내에서 한화로갚는 소위「환치기」는 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간의채권·채무관계를 당국의 허가없이 소멸케 하는것으로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李씨부부가 E제강T금속등에 거액의 사채를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어음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했다는 진정을 받고 이에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사례로 적발한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들회사의진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현재까지의 수사결과 이들부부가 담보어음을활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상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점이 발견되지않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가와 사채업계에 의하면 이들부부는 자금난이 심한 일부 대건설회사와 E제강등에 사채를 빌려주면서 채무액의 2배정도의 액면이 적힌 어음을 받았는데 이가운데 절반은 빌려준 돈에 해당하는 어음이고 나머지 절반은 담보어음(견질어음)이었다는것。

채무액에 해당하는 어음은 유통시킬수 있으나 담보어음은 보관했다가 채무결제때 되돌려 주는것이 원칙인데 李씨부부와 채무회사들은 담보어음도 李씨부부가 활용하고 결제일에 발행기업에 지급제시되면 李씨부부가 대신 지급을 해주기로 묵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숫법으로 처음 李씨부부는 담보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증권투자로 큰재미를 봤고 유통되던 담보어음이 결제일이돼 발행기업에 제시되면 李씨부부가 지급을 해주었다는것。

그러나 불황과함께 증권에서 실패를계속한 李씨부부는 자신들이 유통시킨 담보어음이 기업에 지급제시되도 지급할수없게돼 말썽이생겼던것。

검찰은『李씨부부가 담보어음을 유통시키지 않기로약속한후 활용을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나 자신들이 지급해주기로 하고 활용해도 좋다는 약속을 받았기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있다。

大和산업 자본금 21억의 관광및 호텔 경영업체로 현재 慶州유드호스텔을 경영하고있으며 李씨부부가 지난해 6월 인수、롯데빌딩 18층에 사무실을 차렸다。

견질(見質)어음이란 한마디로 담보어음이다。 한회사가 사채업자에게 1억원을 빌어쓸경우 차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리 제한 현금을받은후 1억원짜리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이때 채무액에 해당하는 어음외에 담보조로 또다른 어음을 발행하게되는데 이것을 견질어음이라고 한다。 견질어음은 관례적으로 채무액만큼이나 그이상의 액면가가 기입돼 발행되며 통상 담좌수표가 사용된다。 이 견질어음은 담보용이기 때문에 보관하고있다가 채무결제때 되돌려주는것이 원칙이나 사채업자와 채무회사간에 합의하면 사채업자가 활용할수도있다。

大門굳게잠긴 李씨집 "나는모른다"목소리만

한편 서울 江南區 淸潭洞 58의2 李哲熙씨(59)집에는 7일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채 남자한명이 집을 지키고있었는데 인터폰으로「나는 집을 지키러온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니 다음에오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다。

대지 2백20평에 건평80평의 2층슬라브로된 李씨집담엔 전기줄로 경보장치가 설치돼있었고 값이싼 정원수로 온집안이 뒤덮여 있었다。

◇값비싼 정원수로 단장된 李씨집。 李씨부부가 구속된 7일 대문이 굳게잠긴채 외부와의접촉을 피했다。

前議員과「私債큰손」의 正體는

성격까다로운 李哲熙씨…맡은일엔 誠實

李哲熙씨 李哲熙씨(59)는 육사2기생으로 예비역육군소장。 忠北淸原 출신인 李씨는 일제때 일본 나까노(中野)정보학교를 나와 해방후 육사를졸업、임관한후 주로 첩보및 방첩부대에서 근무해온 정보인이다。

5·16군사혁명당시 육군방첩관계책임자로서 혁명모의를 제일먼저 탐지하고 내사를 벌였던 관계로 잠시 불우한 입장에 처한적도 있었지만 고朴正熙 대통령의 동기생인데다 그의 정보능력이 인정되어 모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관에서 14년동안 근속하면서 제2인자자리에까지 올랐던 그는 79년 10대維政會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결벽성이강하고 과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지고있다。 부하들이 결재를 받을때 입에서 마늘냄새가나거나 부동자세를 취하지않으면 불호령을 내렸고 또 배달된 신문이 궂은날씨때문에 눅눅하면 다리미로 다려서 자기앞에 갖다놓을것을 부하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정보인답게 개인보안에도 철저해서 자기방을 떠날때는 자기만알게 머리카락을 책상위에 놓았다가 돌아와서 머리카락의 위치를 보고 침입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볼정도로 과민한 성격이기도했다。

그는 이처럼 까다로운성격때문에 직속부하나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까이접촉하는 사람이 극히적은편이었다。 그러나 한가지 직무에관한 성실성만은 대단해 누구도 따를수없을정도였다는 게 그를아는이들의 일치된 평가다。

證券街 주물렀던「女王」…베일속 張여인

張玲子씨 張玲子씨(38)는 사채업계와 증권가에선「큰손」(錢主)으로, 불교계에선·장보살로 알려져온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미모와 그녀가 가진재력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했다。

張씨가 증권가에「큰손」으로 나돌기 시작한것은 80년하반기。 새로운「큰손」이 증시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주가는 꿈틀꿈틀하기 시작했다。 작년4월부터 7월까지 證市는 건설주를 중심으로 과열현상까지 보였다。

이때 종교자금과 큰손들이 介入하고 있다는 루머가 증권가에 파다하게 퍼졌고 롯데빌딩 18층에 그사령탑이마련되어있다는 소문과함께 각증권계 인사들이 줄을 이어찾아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張씨는 결코 표면에 나서지 않았다。 張玲子씨 밑에 金모씨가총책을 맡아 주식을 사고 팔게 했다。

金모씨는 S증권에 근무한적이있고 최근까지 H상호신용금고 비상근감사로 있으면서 明洞에있는 소형증권회사인 漢陽증권의 상주고객으로 알려지고있다。 40대의 김모씨는 주식을 파는사람과 사는사람을 나누어 三寶·한양·신영증권등의 창구를 이용、책동전을 폈던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주식을 살 경우 반드시 현물(주권)을 인수、팔때 인도해 주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창구만 이용、주식을 매매하고 현물은 증권회사간에 인도인수시키고있는것과 비교하면 색다른 거래방식이었다。

張씨는 작년 상반기건설주 호황때 주로 우량건설주를대상으로 투기전을 벌였는데 현재에도 이들주식을 5~6백만주이상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관계자들은 張씨의 사주를 받아 투기전을 벌이는 金씨가 한탕하고 물러난 직후 매번「당했구나」할 정도로 張씨가 사전에 정부발표예정정보를 정확히 입수、활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수백억원의 자금을 굴리면서 투기전을 벌이는 이「큰 손」의 정체가 張씨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張씨는 또 증권가에서뿐아니라 사채업계에서는 더욱「큰손」으로 알려졌었다。 아무리 금액이큰 急錢이라도 張씨와 접선되면 틀림없이 구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張씨는 주로 해외건설업체를대상으로사채놀이를했다。 해외건설업체들은 수억달러내지 수십억달러의 해외건설수주를 하고있는만큼 자금난을겪더라도 정부가 쉽사리 부도처리를하지 못할것이라는데 착상했다。 따라서 현재 張씨의사채놀이와관련된것으로 알려지고있는 회사들은 대개가건설회사들이다。

특정업체가 자금난을 겪고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다리를 놓아 접선을 했다고 한다。 당장 부도가날 지경인 해당기업은 이율에관계없이 당장 급전을빌어 보지않을수없는실정。

처음엔 정상적인 이율로사채놀이를 하다가 점점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이율을 높이면서 거액의담보를 요구했다고한다。

예를 들면 1백억원을빌려줄때에는 최소한 2백억내지 3백억원이 담보를요구했다。

張씨는 당초엔 소규모의자기자금을 밑천으로 사채놀이를 하다가 점차 기업과 사채업자간의 중개역할로 거금의 자금을 굴리게 된것으로 알려졌다。

張씨는 약속과는 달리 만기일전에 이어음을 사채시장에 돌려 현금화시켰다。

이현금을 바탕으로 점점사채규모가 커지고 담보금액도 늘어나게됐다。

이자금 일부는 은행에 예금을해둔후 상당한시일이 지난후 전액 찾아가겠다고 예금인출을요구하곤 했다는것。 은행은 이예금을담보로 수표를 발행해줄수 밖에 없었고 그발행액은 예금액을 훨씬 초과하게 됐다。

워낙 큰예금주이고 흘러나오는 주변여건등이 그와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호의 의심도 할수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략으로 張씨가굴린 자금규모는 수천억원에달하는 것으로 소문이나있다。

張씨는 그동안 사채와 증권으로 거금을 굴리게되자 금년초 서울奬忠洞소재 아시안 사파리클럽을 40억원에 사들인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년초 바로 이사파리클럽에서 李哲熙씨와 3번째 결혼식을 초호화판으로 올리기도했다。

롯데빌딩 18층엔 초호화사무실을 차리고 벤츠등의 고급승용차등으로 재력을 과시하기도했다。

그러나 張씨는 지난달28일 금기야 욱일승천하던 운이기울기 시작했다。

張씨가 돌린 담보어음이무더기로 은행에 쏟아져 들어왔다。 은행은 관련기업에 이어음결제를 요구하게됐고 이어음결제를 해줄 능력이 더이상 張씨에게 없게되자 그숫법과 행각이 드러나게됐다。

張씨는 S대 교육학과를나왔으며 그동안 두차례 이혼했으며 바로전남편 K제강대표로부터 위자료로 5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79년 가톨릭에서 불교로개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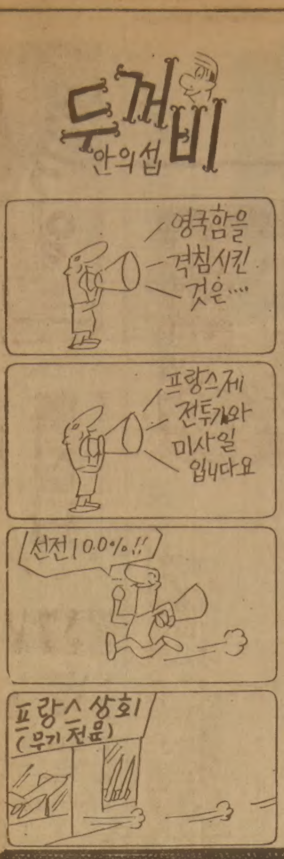
불명은 普覺行이며 全南白洋寺에서 국가와 지도자를위한 水陸齋를 올리기도했다。

張씨의 베일이벗겨지자 시중에선 해방직후의 妖花裵貞子를 연상케하는 여인이라면서놀라고있다。【經濟部】

在鄕軍人의날 30周

재향군인의날 30주년 기념식이 7일상오10시 劉彰順국무총리、周永福국방부장관、金鍾煥재향군인회장과 향군회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奬忠洞 국립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文節雄씨(경남馬山市분회장)李星遠씨(충남燕岐郡분회이사)李洪九씨(본부 안보과장)등 3명이 향군상을받았으며 그밖에 黃夏澤씨(전남도지회장)등 29명에 훈표창이 수여됐다。



「救社운동」외면 業主 深夜도주

보너스返納등 百여종업원 다시 失意에

【鎭海】도산직전에 있는 기업주가 종업원들의 구사운동마저 외면한 채 야간에 도주해 버려 종업원 1백20명이 일자리를 잃고 밀린 급료와 퇴직금마저 못받게 됐다。

鎭海市慶和洞1街32 신흥공업사 대표 엄會태씨(37)가 줄톱과 동남아 일대에 용접기와 절단기등을 생산、수출해오다 최근들어 수출부진과 은행대출금 3억5천만원 및 사채 3억5천만원등 7억원의 부채를 감당 못해 지난5일밤 가족과함께 달아났음이 7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회사 팽용태씨등 종업원 1백20명은 지난달 회사의어려운 사정을감안、취로시간을 연장하고 연간보너스 3백%중 2백50%를 반납키로하는등 회사를살리기위해 애썼으나 기업주 엄씨가 이를 외면한채 도주했다는 것。

노동부 馬山지방 사무소와 鎭海市는 종업원 1백20명분의 체불된 2개월분 급료 2천5백만원、상여금 2천1백만원등 모두1억6천6백만원을해결하기 위해 회사의제조설비(2억원상당) 제품재고(6천만원) 원자재(2천5백만원)등에 대한 재산권확보를 서두르고 있다。【聯合】

億臺부도후 逃走한 수퍼마킷 代表구속

【榮州】경북榮州경찰서는 7일 1억2천여만원의 부도를 내고 전세금 5천여만원까지 챙겨 달아났던 승철수퍼마킷 대표 李大植씨(32·榮州市下望3洞341)를 붙잡아 사기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榮州市에서 승천수퍼마킷을 경영하면서 농협榮豊郡지부와 당좌를 개설해오던중 지난81년12월3일 75만8천원을 부도낸것을 비롯、시중 은행으로부터 24회에걸쳐 모두 1억2천8백55만원의 부도를 내고 자기전용에 세든 상인들로부터 전세금 5천1백만원을 챙겨 지난 1월18일에 도주、경찰의 수배를 받아왔었다。【聯合】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百94개 初·中·高校신설

문교부、83학년도에

내년 전국에 1백94개의 초·중·고교가 신설된다。

문교부는 7일 83학년도 초·중·고 학생수용 계획을 확정、국민학교 97개교、중학교 56개교、고등학교 41개교에 대한설립계획을승인했다。

이에따라 국민학교 2천5백58학급、중학교 5백87학급、고등학교 2백85학급이 신설된다。

문교부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연한연장을 위한기반 조성을위해 중학교에 재정투자를집중、앞으로 무교면(無校面)이 없도록하고 고교신설은 공립을 억제하는 한편 사학설립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어버이날」행사 是非벌이다 이웃때려 숨지게한 뒤 自殺

【木浦】6일 하오 8시20분께 전남新安郡安佐面內湖里 마을회관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협의하던중 사소한시비끝에 이마을 金錫植씨(48)가 孫春植씨(46)를 때려 숨지게한후 자신도 자기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어버이 날인 8일 마을 행사를 협의하던중 이번 어버이날행사가 몇해째인가를 놓고 金씨와 孫씨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난 金씨가 孫씨의 뒷머리를 주먹으로마구때려 현장에서 숨지게했다。【聯合】

奇亭禧양 람중히말峰정복

6、986m…한국女子로선 최초

【카트만투(네팔) 7日AP聯合】한국여자등반인으로서는 최초로 奇亭禧양(26)이 6일 히말라야의 람중히말峰(6천9백86m)을 정상정복했다고 네팔관광성이 7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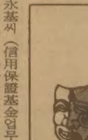
奇양은 이날 1명의여자셀퍼를 포함한 4명의 셀퍼와 함께 람중히말峰정상 1백50m밑에 설치한 캠프를 출발 정상공격끝에 성공、태극기를 정상에 꽂았다고 네팔관광성 대변인이 전했다。

람중히말 한국여자등반대(대장 鄭吉順·28)는 9명의 대원으로 구성돼있으며 서울鮮京 여자 산악회원들로서 지난3월2일 등반길에 나섰다。

中共 킬러

"勝中"으로 改名해야할 趙勝延코치

"榮光은 한순간…이기는過程이 중요"



勝延。 延世大에 이기라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전 농구계가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별난 이름속에 응결돼 있는 승리의집념과 그「강도」를 헤아리는 사람은 적다。

한국여자농구대표팀의 훈련사 趙勝延코치(38·사진·현東邦生命여자농구팀감독)。 그는 이름처럼 자신을 불태워 우리의 남자군을 10억의 中共을 꺾고 영광스런 우승대위에 세워놓았다。

趙勝延코치의 先親 趙得俊씨는 40년대부터 50년대 초까지 한국남자농구를 주름잡은 스타·플레이어。 金永基씨(信用保證基金업무개선부장)에 앞서 나타난 한국농구의 기린아였다。 그때역시 농구의 하이라이트는 延高전。 철저한 高大팬인 趙씨는 高大 승리의 견인차였고 延大에 이겨야한다는 철두철미한 집념은 勝延이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전승되고 이들에게 모든 게임에서 무조건 이겨야된다는 승부사의 기질로 승화되었다。

63년 서울高를 졸업할때까지만해도 勝延은 아버지와 다른길을 걸었다。 특별활동시간에 농구볼을 던져본것이 고작。 그러나 핏줄은 속일수 없었던지 아버지 제자인 朱基善씨(현재美國거주)에 발탁돼 高大에들어가 아버지의길을 따르게 되었다。

한국대표선수를 거쳐 企業銀行、三星코치、東邦生命 감독을 맡고있는 趙勝延씨가 대표팀 코치로 선임된것은 79년。 그러나 그의 이름은 항상 申東坡라는 농구巨人의 그늘속에 묻혔다。 남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공을 늘 다른사람에게 돌리는 성격。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체질은 바로 父傳子傳。

이번 ABC를 대비하기 위해 趙勝延코치는 泰陵선수촌에서 가정도 잊은채 훈련에만 몰두했다。 中共을 이기기위한 비책을 짜내는것이 趙코치의 고뇌였다。

승리의 순간「화려한 영광」뒤에 숨은 智將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흘렀다。『이긴다는 자체와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기고난 후의 영광은 한순간에 불과하다。』趙勝延코치가 늘 입버릇 처럼 하는 말。

이번시합에서 백중세로 따라붙은 中共의 킬러가 계속되기위해 이제 趙勝延코치의 이름을「趙勝中」으로 바꿔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閔炳宅기자】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샾, 기프트샾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정기총회
재 캐나다 체육회 아이스하키협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일 : 1982년5월19일(수)오후6시
장 소 : 한국관(628 Bloor St.W.)
연락처 : 535—2091
재캐나다체육회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 이 영 현

씨름협회 임원공고
82년도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씨름협회 집행부임원진은 다음과 같읍니다.
회 장 : 석종윤
부회장 : 김연태
총 무 : 김연수
섭 외 : 윤종옥
경 기 : 최용근

「生活의 活力素」와 「건강의 敵」사이에…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經濟部 金曙雄 차장 朴炅銀 기자
◇社會部 林承茂 기자 金薰 〃
◇文化部 梁平 기자 禹桂淑 〃 李亨基 〃
◇특집부 李光榮 차장 文昌宰 기자
◇寫眞部 崔東完 기자 李基龍 〃 張啓文 〃

술의 世界

너무들 마십니다

한사람이 年3백6병마셔 日人능가

2兆원市場 1인당 5萬7千원부담

不況여파로 작년부터는 소비줄고 독한술 찾는경향

술을 적게 마시자。 술을 적당히 마시는것은 경우에따라 건강관리를위해 좋을수도있다고 의사들은 권하고있지만 근본적으로 술은 이로운것보다 해로운게 더많다。

더구나 우리나라국민은 개인소득이나 체질에비해 술을 많이 마시는편이다。 최근 2~3년동안 불경기와 물가상승에따른 실질소득감소로 우리나라 국민1인당 술소비량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에있고 올들어서도 통금이 해제되었으나 주당들의 주머니사정이 어려워진탓인지 술소비량은 오히려 줄고있다。

그러나 전체 술소비량이 줄었으면서도 내용면에서는 고급양주、독한술의 소비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있어 달갑잖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국민1인당 알콜섭취량은 연간 6·5ℓ정도。1백% 중성알콜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나타난 숫자이다。

美國의 국민1인당 알콜섭취량은 8·4ℓ 덴마크9·02ℓ 오스트리아 10·6ℓ 西獨 12·4ℓ 이탈리아 12·8ℓ 프랑스 16ℓ등 서양인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이웃日本의 5ℓ에 비해서는 1·5ℓ나 더많은 양이다。 우리나라의 술인구를 14세이상 65세미만으로 잡고 여기서 여자들이 남자의 절반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계산하면 애주가1인당 알콜섭취량은15ℓ로 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다는 프랑스의 국민1인당16ℓ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비교된다。 신체조건이나 알콜분해속도및 영양섭취량등을감안할때 서양인들이 동양인보다 술에 강하다는게 정설이므로 우리나라 주당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고볼수있다。

지난 81년 한해동안 술소비량을 보면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음이 실증된다。 1년동안 술소비량은 2홉들이 기준으로 89억5천6백43만4천병에 달했다。 정부종합청사 부피의 술통에 부었을때 11통을 채우고도 5분의1 이상이나 되는 양이다。

술인구를 15세이상 2천5백84만5천명으로 잡아 1인당소비량을 따져보자。 한사람당 연간 3백6병을 마셨다는 계산이나온다。 여기서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못하는 사람、술을 않은 사람、부녀자및 미성년자등을제외하면 애주가 1인당연간 술소비량은 4백병을 넘을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최근들어 술소비가 둔화 또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79년이전만하더라도 연평균술소비증가율은 5~6%에 달했다。79년가을 오일쇼크로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었으나 80년의소비량은 79년보다 2·9% 증가했다。그러나 지난해에는 경기침체의 심화로 80년보다 1·4%가 감소했고 79년에 비해서는 1·5%가 증가했다。올들어서도 술소비는 계속 줄어 3월말현재 대중주인 소주가 7·4%감소한 것을 비롯、청주와 고량주는 각각 38·1%와 47·6%가 줄어 애주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위스키 과실주 및 인삼주도 3%~21%가 줄었으며 특히 브랜디의감소는 두드러져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82·9%가 줄어 사양산업화되는 비운을 맞고있다。 최근 몇년간 꾸준한 감소추세를보여온 서민주인 탁·약주도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맥주는 3월말현재 6백40㎖ 유흥음식업소용 큰병으로 1억9천만병이 소비되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2%가 준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주당들이 즐겨 마시는 술은 역시 전래의 민속주인 탁·약주와 대중주로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는 소주이다。지난해 탁·약주소비량은21억6백51만병으로 1인당 (15세이상 인구기준) 82병을 마셨다。맥주와 소주는 9억1천7백만병과 8억3천1백만병이 팔려 1인당소비량은 각각 35·5병과 32·2병에 달했다。국산양주 청주 과실주및 기타주류는 9천1백72만병이 소비돼 1인당소비량은 3·5병이었다。

탁·약주가 전체소비량의 53·4%를 차지、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맥주가 23·1%、소주가 21%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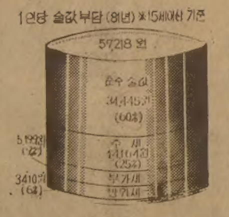
주류업체들은 최근 불황타개를 위해 병생맥주、30도소주、증류식소주、매실주및 냉장고보관용청주등 새제품개발을 서둘고 있으며 하이네켄 삿뽀로등 외국유명주류상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중에있다。하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술의 급격한 소비증가는 기대할수 없을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내다보고있다。연초 야간통행금지해제와 더불어 술소비가 늘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술소비는 오히려 감소했고 술먹는 시간만 더 길어졌을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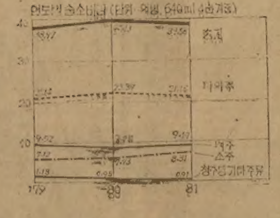
주당들이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심에 따라 국내에서만 2조원을 바라보는 술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번돈의 상당액이 술값부담으로 지출되고 있다。주세 부가세등 세금을 포함한 지난해술값부담은 1조4천7백88억원에 달한것으로 집계된다。15세이상 인구기준으로 1인당술값은 5만7천2백18원이나되는 셈이다。전국가구수를 7백만세대로 잡았을때 가구당 연간 술값부담액은 21만1천2백원으로 웬만한 가정의 한달 생활비에 해당하는액수。

술값의 40%는 세금이어서 순수술값으로 지출하는 돈은 8천9백22억원이고 세금이 5천8백86억원으로술값의 40%를 차지하고 있다。1인당 술값5만7천2백18원중 세금은 2만2천7백73원이 포함되어있다。소주 맥주등 각종주류에붙는 稅目별세수는 주세가 3천6백61억원으로 가장많고 부가세는 1천3백44억원、방위세가 8백81억원에 달했다。주당들은술을 마시면서 세금도 함께 마시고 있는 셈이다。

주당들의 술마시는 회수에관한 통계를보면 남자의경우 40·3%가 1주에 5회이상 29·4%가 1주에 2~4회정도 술을 마시는것으로 밝혀진적이 있다。여자의 경우도 1주에 5회이상마신다는 사람이 2·7%에 달해 주목을 끌었다。애주가들은 주로 직장동료와 가장 자주 술을 마신것으로 집계되어있다。

【朴炅銀기자】





술이 사람을 마셔서야

엄숙했던 祖上의 酒道… 巡杯도 7번이내

수년전 전남長城郡森西面에서 있었던 일이다。마을사람 金모씨와 林모씨가 술에 취한채 森西국민학교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더니 차례로 쓰러졌다。이들은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두사람은앞서어느잔치집에서거나하게 술을 마신뒤 2만원을 걸어놓고 소주를 마시는 술시합을 벌였다。한되를 다마셔도 끄떡없자(?)자전거타기시합을 벌이던중 변을 당한것이다。

이런 사건은 우리나라 신문에서 심심찮게 볼수있다。이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미련한 사람」、「정신나간 친구들」이라고 혀를차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술꾼치고 이런 술시합꾼들을 자신있게「미련한 친구들」이라고 말할수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될까。

밤11시께 서울 무교동의 주점가를 다녀보면 「死線」을 헤매고있는 술꾼들의 모습을 손쉽게 볼수있다。

해외에서도 한국인들의 나쁜 주벽이 널리 소문나있다。외국의경우 알콜중독자가 아닌 이상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술꾼은보기힘들다。우리나라보다 민도가 낮을 것같은 남방국가들이건 마피아의 고향인 이탈리아건 마찬가지다。외국 술집에 가면 2홉들이 맥주병을 가운데 두고 나직나직 이야기하다 이야기에 조미료를 타듯 한모금씩 술을 마시는「얌전한」술꾼들을 보게된다。흔히 한국인들은 이런외국인들을 노랑이 같다느니 술맛없게만드는 친구라고 손가락질을 한다。확실히 한국의 「술집」과 술마시는 태도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暴酒、소음、퇴폐가요、폭력등이 난무하는 무법지대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음주풍토를 개탄하고 고치려드는 사람들은 그리많지 않다。대체로 술집이란 원래 그런것이며 예부터 술은 그런식으로 마셔왔지 않느냐는 고정관념들을 갖고있는 탓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음주습관은 단정하기 그지없었다。조선왕조때 冠禮、喪禮、祭禮、婚禮、相見禮등과 함께 술마시는 예법인 鄕飮酒禮를 六禮로 지켜왔던것이 그좋은 증거。

韓國青年儒道會(회장 徐正淇교수)가 79년과 작년에 鄕飮酒禮를 재현했는데 TV를통해 이모습을 본사람들은 제사나 결혼식보다도 더 엄숙한선인들의 酒道에 깜짝 놀랐다。

이런 교과서적인 의식은 아니지만 70~80년전까지만해도 웬만한 가정에서는 꽤 엄격한 酒道가 있었다。

언론인 趙豐衍씨는『철이 조금들자 家親이 직접 술마시는 법을 가르쳐주셨으며 언젠가는 아우가 술을 마시고 주정하자 엄하게 꾸지람을 하셨다』고 회상한다。술주정은 祭禮같은데서 실수를한것이상의 망신으로 쳤기때문에 각가정에서 酒道를 일찍부터 엄하게 가르쳐준 것이다。

선비들이 즐기던 巡杯도 실은 과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여럿이 술을 마실때 잔을하나만 가지고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가며 마셨는데、술이 한순배씩 돌때보다 술이 취했다 싶은 사람은 뒤로 물러나 앉거나 형식적으로 술을 받았다。巡杯는 보통 三巡杯로 그쳤으며 七巡杯를 넘지 않았다。

酒道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日帝때부터였다。어떤 사람들은 日本人들이 한국인의 음주습관을 타락시켰다고 비난하기도한다。

그러나 오늘날 日本을 보는 사람들은 절도있게 술마시는 모습에 많은감명을 받고있다。한국인들의 술버릇이 나빠진것은 전통적인 酒道가 사라진데다 잇따른 사회적불안정으로 마음이 거칠어진 때문。

이제 까다로운 酒道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한 일이다。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節酒의 습관이다。술이 사람을 마시지 않고 사람이 술을 마셔야한다는 평범한 상식으로 되돌아가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節酒캠페인이 지금까지 없었던것은 아니다。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을때는「술없는 마을」만드는 禁酒운동까지 벌였다。그러나 주점가의 풍경이나 술마시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禁酒운동보다 1969년에 시작됐다 사라진「술잔 주고받지않기」운동부터 라도 해볼것을바라고있다。당시언론인이었던 鄭光謨씨(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의 주도로 시작된 이운동은 日本에서 본뜬것이었다。日本을 방문한鄭씨는 어느회사의 총장이「술잔 주고받지않기운동」이라는 아리송한 배지를달고있는것을 눈여겨보고 귀국하자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이 운동은 한때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정치인들이 주도한것이어서 정치적변을 당하자 시들어버렸다。

그러나 운동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후에도 산발적으로 이를주창했고최근에는 의학계도 술잔돌리지말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있다。

의사들은 술잔을 돌릴경우 肝炎바이러스와 결핵균같은것이 옮길수있다고 경고한다。肝炎바이러스가 얼마나 해로운가는 14일 權正達 民正黨사무총장이 全斗煥大統領에게 보고할때 언급한것만보아도 알수있다。民正黨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이 보고서는 肝炎이 콜레라、장티푸스、성병、결핵같은 만성전염병보다 무섭다고 결론짓고있다。

이런 위생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다른 사람의 입에 들락거린 술잔을 입에 댄다는것은 그다지 내키지않는 일이다。어떤 술자리에서는 술잔1개로 수십명이 돌려가며 현대판 巡杯를 하기도한다。徐正淇교수는 옛날의 巡杯는 돌릴때마다 잔을 씻어 마셨으며 따라서 一巡杯를 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술잔 주고받기의 가장 큰문제는 필요이상의 술을 마시게되는점이다。한국의 酒宴으로는 웃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권하게되어 술을 마시지못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마시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술을 마실수있는 사람들도 상대방에게 술잔을 빨리 건네주기위해 서둘러 마시게 되며 결국은 주량이 센 사람의 페이스에 끌려가게된다。

巡杯가 그랬듯이 술잔을 돌리는 풍습은 예부터 있었으며 아직은 中國과 日本등 농경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그러나 中國은 20세기에 들어와 점차 이 풍습이 없어졌다。닉슨이 中共을 방문했을때 미국인들은 파티에서 술잔이 비자 얼른 잔을 채워주는 것을 무척 신기해했다。

이와같이 잔을 건네지않는 권주는 동양적인 주흥을 살리면서도 위생적으로나 음주속도에서나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것이 특징이다。

세계적으로 술잔을 주고받는나라는 日本과 한국뿐이었는데 70년대를 지나는 동안 日本에서도 이습관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술잔을 주고받는데는 콩알 한개라도 나누어먹는다는 농경사회의 인정같은것이 깔려있다。그것은 담배를 권하는것과 비슷한것이다。여기에는 또 구성원들의 沒個性的인 융합을 유구하는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스며있다。하나의 잔을 주고받는 친친한 행위를통해 서로 동류의식을확인했고이를거부하면 이단자같은것으로여겨졌다。

그러나 술잔 주고받기가 여전히 성행한데는 이를 타파하기위한 조직적인 계몽이 없었던데도 원인이있다。지금까지 실현성없는「××의 날」로 3백65일을 채우다시피한 당국이지만 술잔돌리지않기같이 실현성있는 캠페인을 한적이없다。

술잔 주고받지않기운동에 공감한梁起榮씨 (70·城北區貞陵洞654의32)는 작년5월 보사부장관에게 본격적인 캠페인을 펴자는 편지를 띄웠으나 응답이 없다가 지난3월 다시 편지를

잔안돌리고 對話에 조미료타듯 즐겨야

보내자『규정이 없어 곤란하다』는 답장을 받았다。『국민의 보건에 그처럼 해독을 주는 습관을 개혁하려하지않고 규정타령만 하고있는것이 안타깝다』고 그는 말하고있다。

체계적인 계몽의 부족으로 상당한 식자들도 요즘같은 술잔돌리기가 극히 민족의 전통적인 미덕이며 이를기피하는것은 섣부른 양풍이라는 편견을 갖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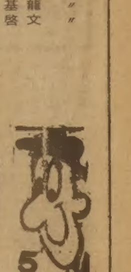
그러나 요즘의 권주는 전래의 한국식과 일본식이 뒤섞인것이다。한국의 酒習으로는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바치게돼있고 日本人들은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술잔을 내리게 돼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사람은 드물다。가끔日本人들을 접대하는 한국인들이 술잔을 권하여 그들을 격분시키는 촌극도 벌어졌다。

한국의 풍습으로는 빈잔을 권하지않고 술잔을 채워 건네게돼있으나 TV史劇에 나오는 임금들도 빈 술잔을 건네는 日本式권주장면을 볼수있다。

한때 「술잔 주고받지않기」운동에 참가했던 崔臣海씨(清涼里뇌병원장)는『사회가 봉건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바뀌었으니 그에따른 酒道가 생겨나야할것이다。

종전의 까다로운 酒道대신 편하게 술을 즐기면서도 주위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그리고 빈곤했던 시절을 연상케하는 어거지식 권주대신 민주 시민답게 개성을 존중하는 권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梁平기자】



巨龜莊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흥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소프레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영업시간〉 월·화·수: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한국일보 (특집판)

술의 世界 너무들 마십니다

「酒量」만 있다

즐기기보다 競爭하듯

큰잔돌리기에서 잔놓기 없기도 부르는게값…2차3차型 바꿔야

暴飮과 바가지 現場을 보면

酒量자랑하듯…

이땅의 술꾼들은 말로는 풍류니, 술을 사랑하느니 떠들지만 실은「폭음」을 최고의 미덕으로친다。얼마나 많은양을 들이켰는가만 문제가 될뿐 어떻게 마셨는지는 전혀 이야기거리가 못된다。짝지가들아 어떻게 놀아왔는지 기억할수 없는정도가 돼야 비로소『좀마셨다』고할수 있다。

하오8시 武橋洞D갈비집。막 퇴근한 어느회사갈은파직원20여명이 들이닥친다。종업원들이 재빨리 술상을 일렬로 정리한다。가운데 자리에 부장 차장 과장들이 자리잡고 직원들이 적당히 자리에 앉는다。부리나케 날라온 불고기가 숯불에 구워지고 곧이어소주20여병이 한꺼번에 술상위에 놓여진다。

대충 자리가 정리된후 부장이란 40대의 건장한 남자가 모두 술잔이 채워지는것을 기다려『건배』를 외치고 일제히 술잔을 기울인다。그리고 주위사람에게 술잔이 바쁘게 오고간다。술잔은 특히 간부급에게 많이 몰린다。자기앞에 술잔이 없으면 무슨 모욕이라도 당한듯 빨리마시고 돌리라고 아우성이다。이런식으로 대충30분∼1시간가량 술잔이 오간다。어느새 좌중의 분위기가 시끄러워지고 취기가오를무렵 부장이란사람이 종업원들을 큰소리로 불러 양재기를 가져오도록하고 그속에 소주를 쏟아 붓는다。2홉들이 소주 3분의2가 넘는양이다。그득한술잔이 적어양이 안찬다。이렇게 마시다가는 밤새도록 마셔야겠다』며 지금부터 양재기로 시작하는데『빠짐없이 마셔야하고 술잔은 꽉채워야하는데 이를어기는사람에겐 벌주가 따른다』고 일갈한다。그리곤 양재기채 벌컥벌컥 들이켜 모범을보인 그모습을 부원들은 질린표정으로 바라본다。양재기는 계속해서 돌아간다。

풋나기 사원이나 술에약한 사람은 독약을 마시는 기분으로 이를 악물고 마신다。술을 거뜬히 마셔낸 부원에겐『술만한 친구다。결물이구나』라는 호평이 따르고 그렇지 못한친구는『거 안되겠는데』라는 핀잔이다。양재기가 한바퀴돌아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때 술실력이 대단해뵈는 한친구가 양재기를 뺏아『이번엔나부터시작한다』며 첫번째와는 반대쪽으로 돌린다。이런식으로 몇라운드 순회하면 좌중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한다。

이런 폭음의 현장은 시내 어느 술집이고 볼수있는 풍경이다。

이보다는 조금 고급술자리라고 할수있는 어느요정의 풍경을 보자。흔히 밤석집으로 불리는 요정에는 사업상 이해관계가있는 40∼50대 중년사업가들이 호스티스들과 섞여앉아 양주를 마신다。어느정도 취흥이 돋구어지면 역시 큰술잔돌리기가 시작된다。

얼음을 타는 언더록스잔에 양주를 스트레이트로가득채운다。이 때 주의사항은「남녀노소불문」「생사불문」「노털카찜띠오」。요정에 한번쯤 가본사람이면 누구나들어본 은어인데 요컨대 좌중에있는 사람은 모두 무조건 마셔야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술마실때 술잔을 놓아서는안되고 술을 마신후 술잔을 털어서도 안되고 마신후「카」하는 소리를내서도안되고 얼굴을 찡그려도 안되고 술잔놓임에서 떼어서도 안되고 술잔을 오래갖고있어도 안된다는 뜻이다。결국 술을 마시게하기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어느살롱의경우。1차술을끝내고 이미 어느정도올라있는 40대초반남자 5명이 밀실에서 호스티스와섞여 국산위스키를 마신다。취기가 오르자는닷없이 한친구가 구두한짝을 벗어들고 양주를 따라마신후 구두를 잔으로삼아돌린다。물론 지저분한 구두지만 취객들에겐 문제가 안되고 더욱 흥을 돋구게된다。

이밖에도 손님을 집에초청한후 현관문을 들어서는 친구들에게 국사발로 술을 가득따라 차례로 마시게하는 풍경이나 술집에서 여자고무신을 술잔삼아 돌리거나 산이나 야유회에서 양재기로 술을 돌리거나 또 친구나 선배 상사들과 3차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에까지 함께가 날을밝히면서 마셔야되는등 우리주변에서는 폭음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갖가지 술풍속이 늘어나고있다。이들은 주량이 의욕과 스테미너의 상징으로 믿고있으며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에 술이센 사람은 승자가 되는 필수조건쯤으로 알고있다。

실제 성공한사업가나 남보다빨리 보스로성장한 사람중에는 술자리에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보스의자질을 키웠다는사람도많다。풋나기사원들은 이런 선배들로부터 술을배우고 보스기질을 배운다。

최근 어느무역회사의 영업부장자리에오른K씨(39)는 풋나기 사원시절, 폭음을하며 호연지기를 키워주던 한선배가 지금은 건강을잃고 폐인이되어가는 모습을보며 자신도 자칫 그런모습이 될지도 모른다고 씁쓸한 표정을지었다。【林秀茂기자】

◇사회의 무분별한 음주습관은 바가지술값횡포의 온상이 되고있다。바가지 술값 근절은 업자의 상도의에만 호소해서 해결될일이 아니고 우선 음주자들이 합리적인 술버릇을 정착시켜야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바가지술값

술값은 천차만별이고 같은 술에 같은 안주를 먹어도 업소에 따라서 술값은 예측을 불허한다。칸이주점에서며으면 1만원정도면될 술값이 접대부를둔 이른바 방석집에서는 6∼7만원을 내야하고 여기에 바가지라도 만나는날이면 10만원을 넘어선다。

술값이 부르는게 값으로 고삐가 풀려있고, 바가지까지 성행하는 이유의 첫재는 바로 술꾼들의심리상태에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좁장부라 하더라도대체로 술에 관한한 일말의 호연지기를 버리지못한다。눈치빠른 술집종업원과 접대부는「호연지기」의 虛를 찔러 안주를 연달아가져다주고 여기에 바가지率까지 적용, 계산서를 내밀면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다음날 아침、술취에서 깨어나느라고 뒷골때리고 속쓰릴때 그 엄청난 술값에 생각이 미치면 울화통이치밀게 마련이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외상술인 경우 바가지횡포는 더욱 심하다。술집주인측의 입장에서본다면 외상값을 받게될 날이 기약이없어 그때까지의 금리를 계산치 않을수 없고、또수금의 책임을 테이블 담당 종업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때문에 떼어먹히는 경우의 위험부담률까지도 바가지率에 가산치않을 수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외상술값 바가지에대한 앙갚음은 술값을갚을때 나타난다。외상 술값을 갚는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가지。

한없이 끌어가며 장기할부로 매월 조금씩 조금씩 갚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전액을 갚되 술값을 터무니없이 깎아버리는 방법도 있다。회사원 金모씨(34)는 지난 연말 밀린 외상술값 20만원을 15만원으로 깎아서 갚는데도 돈을 받으러온 종업원은 감지덕지하고『나머지 액수는 없는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것。

金씨는『계산서중 바가지가 5만원이 넘는 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라면서『그렇을 알았으면 좀더 깎을걸 그랬다』며 멋적게 웃었다。바가지 술값이 성행할수있는 또하나의 이유는 술집을바꾸어가며 2차、3차씩 마셔대는 순례형 음주습관때문이다。

1차코스에서는 대체로 바가지를 씌우지 못한다。손님들이 술에 덜 취해있고 또 술과 안주에 정가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회 술꾼들이 2차 코스인 룸 살롱이나 방석집에 이르면 사정은 달라진다。술도 값비싼 양주들 중에서 선택해야하지만 안주를 선택하고 주문하는 권리는 거의 대부분이 접대부들의 손에 달려있다。손님은 술먹고 돈내는 허수아비인 것이다。

M洞의 한 술집에서는 안주용 영게에 1마리를 1만∼1만5천원씩을 받는다。시뻘겋고 우람한 게 한 마리가 접시에 담겨 상위에 오르자 마자 접대부들이 젓가락으로 살을 발라 내는데、발라진 살은 한 움큼에 지나지 않는다。손님들이 술잔을 놓고 잡담을 하는 사이에 접대부들은 이 금쪽 같은 게살을 거의다 집어먹어버리고 손바닥을 두들겨 또 한마리를 주문한다。양주병이 거의다 비워져가면 접대부들은 술병 속에 반잔쯤의 술만 남도록 술을 마셔버린다。이 반잔의 술을 손님잔에 따라놓고는『술 잔은 차야 맛이다』며 새로 1병을 시키고 이에 따라 안주가 또다시 따라들어와야 한다。

바가지 술값은 뻔히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또 술이란 먹는 장소에 따라서 업태와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술1병、안주1접시의 값을 행정적으로 규정한단것도 불가능하다。그러므로 바가지 술값의 횡포에서 벗어나려면 마시는 사람 측에서 음주의 패턴을 개선하는수 밖에없는 것이다。객기를 과시하는 무모가 아니라 人和와 정서순화를 위한 건전한 기호식품으로 적당히 술을 마실줄아는 음주의 새로운 文化가 정착돼야 바가지술값은 근절될 것이다。【金鴦기자】

돈보다 여자보다 더魅力的인지

술꾼 남편은 帝王이자 어린애…不可侵 세계

朴基媛 〈작가〉

춥고 어두운 겨울바다!나는 창가에서서 그를 기다리고서 있었다。바람소리 파도소리─나는 조바심이났다。통금이 가까와오고 그는 코트도 안입고 나갔는데! 역에서 차는 잡았을까? 우리는 이 바닷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그때 어디선지 幻聽같이 그의 취한 콧노래소리가 들린다。나는 어둡고 긴 모래사장을 그 목소리를 따라 뛰다가 잠이 깼다。그건 어제 밤 꿈이었다。깨어서 옆을보니어둡고 추운 모래 사장이 아닌 아침햇살이 찬란히 빛겨든우리집 안방에서 그는 반쯤 입을 벌리고 무심히 잠들어 있었다。

春夢이라고는 또 얼마나 을씨년스런 꿈인가? 한국일보의 청탁을 받고 오래동안 망했던 탓일까?

술을 좋아하는 남자와 같이 사는 여자의 이야기란 바로 어젯밤 춘몽같이 안타까운 조바심으로 채워진 얘기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술은 이 세상 남자에게는 어느 의미에서는 돈보다 여자보다 더 매력이 있고 또한 절대적인 液體이다。

더구나 한국 남자인 경우 이 절대적인 비중은 他의 추종을 不許한다。술을 먹었게 풍류있게 들면 李太白을 닮은 酒仙이 될수있고, 절도없이 마시면 패가망신하기 좋다。여자를 보고 妖物이란말도 있지만 술은 남자에게는 妖物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술에 도통한 어떤 하자는 이렇게 말했다。

『술은 인류의 조상이 만든 絶妙至高의 예술이라고…』

달리생각하면 술이야말로 萬物의 靈長인 인간의 지혜와 연구로 빚어진 보물이다。취기란 不可思議한 작용을 옛날사람들은 神이준 선물이라 존중하고 귀히 여겼다는 전설도 있다。

한잔들면 甘露의 맛을 즐기고, 석잔은 불그레하고, 열잔으로 황홀경에 들어가고 또한 하루의 노고를 잊게되는 반주하는 기분。

이 땅의 남자들은 술 먹는 이유도 골고루 가지각색이고 다양하다。요정에서 政談이 벗어지는가 하면 돈을 벌기위한 뒷거래의 알쏭달쏭한 흥정도 술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분파들은 술을 마신다。친구가 좋아서 술을 마시는 순정파─。또 삶기 고되고 화풀이 할게 많아서, 그냥은 맹숭맹숭해 집 문턱을 못 견넌다는 우울하고 소심한남자들! 하여튼 이래먹고 저래먹고 이 땅의 많은 남자들은 술이란 좋은 미끼로 醉生夢生 중에 자기를 잊으려하고 또 하대하기도 한다。

내가 한번은 정색을 하고 愚問을 던졌다。

『그렇게 술이 좋아?』

『그럼 술은 말이 없고 마시면 취하잖아。이 세상에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 술만은 정직해』

그의 지론은 너무나 담담하다。삶에 미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힘든 고행을 하느냐고 물으면,

『산이 거기있고 산이 좋으니까』오른다는 그 간단명료한 대답하고도 일맥 상통하는게있다。나는 가끔 그에게『당신은 지킬박사와 하이드같이 두얼굴을 가진 남자예요』라고 말한적이 있다。술을 안할때 그는 집에서도 별로 말이없고 조용하다。그러나 취기가들면 어느 한계에서 意識의 斷絶이되고 망자된 미지의 세계에서 그는 어느순간 帝王이 되기도하고 어느순간엔 어린애나 白痴같은 무아지경에 빠진다。

그건 완전히 아무도 침범못할 자기만의 세계이다。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속에서 벌거벗은 童子같이 마냥 행복하다。狂氣내지 妖氣까지 감돈다。

눈오는 추운 밤 길에 거적을 쓰고 자고있는 어린 거지애를 업고와 하루밤을 자기 이불속에서 데리고 자기도 하고 (그냥 버려두면 그날밤 짝 얼어 죽을것만 같더라고 한다) 서투른 피아노를 새벽 2시까지 두드리며 오페라 아리아를 악을 쓰고 부르기도 한다。

내가 그런 그를 용서만하고 또 이해하고 살아 왔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많이 미워도 했고 술퍼도 했고 그리고 내 정돈된 실낱같은 맑은 정신으로 방관만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30년 가까이 살아온 지금 나는 이제 할말이 아무것도 없어지려고한다。

그것은 역시 패기와, 낭만과, 울분과 건강했던 지나간 젊었을때의 흘러간 시간이었으니까…。

回甲길 목서 "이젠對酌이라도…"

그러나 이제 그아픔의 시간보다 더 많은 소중하고 좋은 시간을 그는 나에게 주었다고 생각된다。나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멀지 않아 회갑을 맞는 그는 몸도술도 약해졌다。

술을 먹을수있을때가 좋은 때라고 호언을 하던 그도 연령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제야말로 저녁상의 반주정도로 술을음미하고 즐기는 그의 모습을 원하고있다。나도 늦게나마 한잔정도 대작을할수있는 뒤늦은 술벗이 됐으면 한다。

술이라면 지겨워 그흔한포도주도 집에서 안담그려던내 고집은 이제지간이 버리게할지도모른다。올해는 포도주나 진달래꽃술 담는법을 좀 배워서 담가볼까。세아이가 빠져나간 썰렁한 집안에 황혼이 유난히 빠른것같은요사이 나는 그런것을 생각한다。

꿀떡꿀떡 마시거나 '다시는 안마신다'며 약속 안지키는사람등

알콜중독 10징후

한때 禁酒令이내려졌던 프로티스턴트의 국가인 미국만큼 알콜문제로 고민하는나라도 드물다。

인구 2억2천만명중 9천만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

특히 60、70년대의 마리화나등 마약에 젖었던 10대들이 방향을 술마시기로 돌린후 음주자는 증가하고있다。

지나친 음주가 미국사회에 주는 폐단은 음주로 인한 태업、교통사고、산업사고등으로 연간 1백80억달러의 생산력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꼭 술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76년 소련과 프랑스는 알콜중독자를 제1공적(公敵)으로 규정했다。

어떤 사람이 알콜 중독자 일까? 美國 알콜중독방지 전국위원회는 10가지의 알콜중독자의 증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이런증상이 뚜렷하다면 혼자서는 술을 끊을수 없으므로 전문가(미국의 경우 전국위원회및 그 지부)를 찾아 함께 의논해 치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술을 꿀떡 꿀떡 마신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이 약속을 지킬수없는 사람。

▲술을 숨긴다。술잔수를 적게 먹었다 속이고 술먹은 사실을 껌、소독수로 입을 헹궈 숨기려 한다。

▲파티에 술이 나올것을 알면서도 먼저 한잔하고 간다。술이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올것으로예상、술을 가지고간다。

▲점심전에 꼭 한두잔 해야만하고 하오5시30분이후등 일정한 시간에 꼭 마셔야 한다고 느낀다。

▲다른사람의 불편을 생각않고 저녁식사전 꼭 여러잔을 마실것을 주장한다。

▲손님을 모시기전 연사의 연설이 시작되기전 상대하기 어려운 손님을 대접하기전 서너잔이 필요한 사람。

▲회사에서 부산한 하루、아이들과 정신없이 하루를 지낸후 신경안정이란 명목으로 꼭 마셔야 한다。

▲우울하고 괴치아픈일을 잊기위해 술을 마셔야한다。

▲밤에 술들는후 이야기하고 행동한 것이 후회스럽고 죄스럽게 느껴진다。그러고도 또 마신다。

우리의술·세계의술 그來歷과 역사

구약성서에는 아담의 10대손 노아가 홍수를 피해 아랏산에 갔을때 하느님이 포도의 재배법과 포도주담그는 법을 일러주었다고적혀있다。

우리나라의 신화로는 가을에 햅곡으로 빚은 술로 제사를 지냈다는 단군신화가 있다。중국에서는 禹왕때의적(儀狄)이 술을빚어 왕에게 바쳤다고「戰國策」에 적혀있다。우리나라의 문헌에 술얘기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古三國史記」。동명성왕의 건국담에 술취한 해모수가 河伯의딸 柳花를 데려다 동침、朱蒙을 낳았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에 술이 처음 들어온 것은 약3천년전중국으로부터라고 전해온다。한편「魏志高句麗傳」에『고구려 善藏釀』이라는 귀절이 있고 중국의 시인 李商隱이 신라주를 찬양하는 시를 읊은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양조술이 발달한것같다。

대중의 술인 소주는 高麗때 元나라에서 들어왔다는 학설이 있다。

聖心女大 張智鉉교수(식품영양학)는 최근 연구논문에서『통일新羅시대까지만해도 곡주를 바탕으로한 淸酒濁酒가 주류였으나 그후 中東아시아로부터 阿剌吉酒가 들어오고 元나라에서 소주가 전래되면서 제조기술이 발달했다』고 발표했다。

고려시대에 유입된 外來酒는 문헌상 근거가 확실한 것만도 9가지가 된다는것。약용인 杏仁酒는 文宗32년 宋나라에서、젖술인 羊酒는 예종때 契丹에서、약용 桂香御酒는 예종12년 宋나라에서、花酒는 숙종때 남만에서 각각 들어왔다는것。

또 말젖으로 만든 湩酪이 고종18년 몽고에서、포도주가 忠烈王28년 元나라에서、上尊酒(특급청주)가 忠宣王 원년 元에서、白酒가 忠烈王28년 역시 元에서 들어왔고 한번 마셔 취하면 취기가 1천일동안 계속된다는 中山酒도 고려중엽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張교수는 문헌을제시한다。

술의종류는 그 제조방법에 따라 발효주、증류주、혼합주로 나눌수 있다。발효주는 곡식이나 과일을 발효시켜 만든것으로 포도주、맥주、탁주、약주가 이에 속한다。술의역사는 물론 발효주가 먼저지만 그가운데서 과일을 발효시킨 술(포도주)이 앞선 것으로보고있다。

증류주는 스피리트라고도 하는데 위스키·브랜디·럼·진·보드카등이며 소주·고량주도 이에 속한다。혼합주는 이미 만들어진 술에 과일·나무뿌리·꽃등을 넣어서 담근 술을 말한다。

발효주인 맥주는 보리싹(멀트)을 발효하여 방향재(호프)를 넣은 것으로 평균 알콜 도수는 3.6도다(버크·비어、스타투·비어는 6도)。

와인은 과일을 발효하여 만든 술이다。

그러나 포도를 발효한 것은 그냥 와인이라 하고 다른 과일을 발효시킨 것은 앞에 과일 이름을 붙인다。발효주는 어떤 술이든지 평균 4∼14도인데 와인은 14∼15도까지도 올릴수 있다。포도주는 오래묵은 것일수록 좋다。프랑스의 샤토·타피츠에는 1811년에 만든 포도주가 아직 2병남아있다고한다。

증류주는 火酒·증류주로 불리는 리커와 조리、칵테일용인 리큐르 두가지로분류된다。리커는 알곡을 갈아서 발효한 다음 증류해낸 술인데 이때의 알콜도수는 95도다。이것으로 위스키를 혼합해낸다。

브랜디는 주로 포도를발효한 것인데 16세기께 프랑스 샤롱트강가에서 처음 상품화됐다고 한다。세계여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코냑。프랑스 코냑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에만 코냑이란 이름을 붙이도록 법으로규제하고 있다。

각기 고유명칭이붙는데스코틀랜드產은스카치·위스키、캐나다산은캐나디안·위스키、미국위스키의 상징은 버번·위스키다。

流星의 賦 〈377〉

고독한 英雄

李炳注 作 李友範 畵

행재소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명하고 후계남이 마른들을 불러 모았다。모두들 조정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오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터에 그런 결과이고 보니 사기가 침체된 것인데 계남은 그 침체된 사기를 진작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이다。

『언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 일을 시작했는가。언제 우리가 상을(賞賞)을 바라고 시작했던가。엄동한 겨울을 넘어넘 것이 봄날이다。관군으로서 싸우는 것이 떳떳하라는 생각에 잘못이 있을 까닭은 없지만 우리의 바람이 성취했던 겨로 사실이다。관군이라야만 적을 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우리가 우리손으로 상황을 만들자。우리가 우리의공적을 만들자。우리의 당당 목표는 수원성이다。수원성을 공략하여 우리의 전과를 한번더 밝게 빛내보도록 하자。그리고 왜적이 물러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일체의 불만을 씻어버리기로 하자』

계남이 파악한 수원의 적세는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휘하의 입화직무(立花直茂)가 거느리고 있는 약 5천명이었다。

5천명의 적을 5백명이 공격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후계남은 부하 5백명을 5패로 나누어、부천、남양、용인、안성、진위방면에서 일본의 양곡작전을 ……다。수원에 주둔하고 있는 적병을 유인하기 위해서 계남은 그 가운데의 1대를 이끌고 부천으로 나가 그가 장기로 하는 야습을 적의 문소에 가했다。그러나 그것은 문소를 없애려는 목적이기 보다 거기서 진루를 시작함으로써、수원에서 적의 원병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문소를 파괴한뒤엔 병영의 일부를 불태 수원에서 부천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는 것이었다。

계남이 예상한 그대로 부천의 문소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천명가량의 부대가 수원으로부터 뛰었다。부하가 그 전열을 조총으로 견제하자 계남이

『쏘지 말라。저놈들이 가서 수원에 있는 적병을 몰고 와야한다』

고 명령했다。

그리고 부하 30명을 부천을 내어다보는 언덕 위에 숨으라고 하고 언제 문소를 점령했지 모른다는 기세를 보이라고 일러두고 자기는 70명을 이끌고 수원과 부천을 잇는길로 향해 어느 편한 야산 이쪽 저쪽에 배치했다。부하의 하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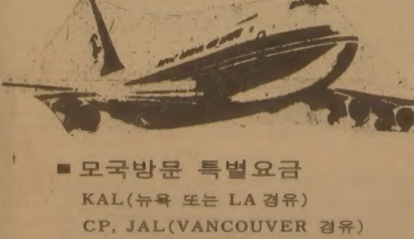
『이렇게면 상세가 험한 형세에서 매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다。

『그런 안해。보통 누구라도 그런 전술을 쓸테니 적은 그런 곳을 반드시 복병이 있을줄 알고 미리 경계를 한다。그런만큼 이런 곳쯤이 신중한 방어를 갖지 못한다。그런데 험한 형세를 무사히 지나면 이제야 안심이라 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그때를 노려 매복을 띠우이면 미복병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무성한 나무와 풀밭을 골라 모두를 의갈하여 산비탈에 찰싹 붙어 있으라고 일렀다。많은 자갈을 골려 손에 쥐면 곳에 숨겼다。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묵

장학금수여 및 정기총회

1981∼82년도 캐나다한인장학재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옵기에 공고합니다.

일시 : 1982년5월22일(토) 오후2시
장소 : 한인회관 (20 Mobile Dr.)
순서 : 장학금순서, 한글학교우수학생 표창, 정기총회.

1982년 5월 2일

재캐나다한인
장학재단 이사장
구상회

설명서

지난 4월24일 실시된 제7회 캐나다미스코리아선발대회의 심사결과를 두고 탈락된 일부후보들의 주위에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나 심사의 과정등은 비공개키로 되었으므로 심사기준과 결과를 다시 한번 발표한다.

1)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능력을 가진 직능별 각분야 인사에 위촉했다.

2)캐라반운영위원회는 심사에 있어서의 전권을 심사위원회에 위임, 심사위원회는 위임된 전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미인을 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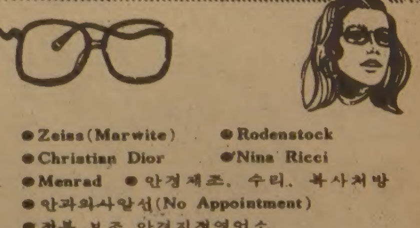
3)채점기준을 한복 20점, 수영복(용모 포함) 50점, 야회복(대화 포함) 30점 = 100점 만점제로 하고, 개인득점에 따라 심사위원들 각기 순위를 정했다.

4)심사위원들은 그 순위의 종합집계에 의하여 진·선·미…를 결정, 5명의 심사위원이 1위로 책정한 함승희양을 "진"으로, 2명의 심사위원이 1위로 책정한 윤혜련양을 "선"으로, 1명의 심사위원이 1위로 책정한 박은희양을 "미"로 각각 선정했다.

5)개인별 득점은 심사위원들의 순위결정에 동률순위가 나왔을 때 참고했다.

캐라반운영위원회
미인대회 심사위원회.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한국일보 (특집판)

술의 世界 너무들 마십니다

得·失로 본 술의健康學

신경성 질병엔 위산분비등 촉진
임신부 음주는 기형아 낳을수도

술은 건강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술을 적절히 즐기면 건강과 생활에 활력소가 되지만 도를 지나치게되면 건강을 크게 해칠수 있기 때문이다. 술이 건강에 미치는 득실을 총점검해 본다. <도움말=▲金兆洙가톨릭의대교수·산부인과▲金丁龍 서울대의대교수·소화기내과▲李吉弘중앙대의대교수·신경정신과▲李雄求연세대의대교수·심장내과·가나다순>

<간>술하면 으레 간을 염려한다. 술이 간장장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16세기께부터 알려져 있다.

알콜이 원인이 되어 일어날수 있는 간질환으론 무엇보다 지방간을 꼽을수있다.

지방간이란 간에 기름기가 끼어 간의 여러 작용이 장애를 받게 되는 경우이다.

사람은 누구이고 술을 어느 일정량이상마시게되면 간에 기름기(脂肪)가 끼게마련이다. 이같은 지방간을 만드는 술의양은 체중 ㎏당 80㎖이상. 쉽게 풀이해서 체중 60㎏인 사람이 위스키나 고량주 또는 진0·3홉, 소주 0·5홉, 정종0·9홉, 맥주1병이상을 마시게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될수 있다. 간에 기름기가 끼는것은 안주의 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방간이되면 환자는 오른쪽 간부위에 뻐근함을 느끼게 된다. 이때 간을 만져보면 부어있다. 그리고 간부위를 누르면 압통이 따른다. 다행스러운 일은 술을마시고난 후에 생긴 이같은 지방간은 48~72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상화되어 없어진다고 한다는것이다. 지방간은 술을끊고 안정을 취하면서 고른 영양식을 하게되면 대부분 잘 낫는다.

독한 술을 안주와 밥같은 곡류를 전혀 들지않고 10일이상 계속해서 들게되면 알콜성간염이 생겨날수 있다. 알콜성간염이되면 구토가 있으면서 구미가떨어지고 섭씨 38도정도의 미열과 함께 설사가 있는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 황달이 나타난다. 이때 간을 만져보면 부어있고 압통을 호소한다. 술을 끊고 안정과 고른 영양식을 해야 한다.

술은 간경변증도 일으킬수 있다. 특히 구미에서는 간경변증 환자의 80%가 예전에 술을 많이 마신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술을 과음하는 사람에게서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예는 불과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통계보고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간염과 간경변증등 각종 간기능장해환자의 발생이 술을 마시고 안마시고에 큰차가 없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우리나라엔 아직 구미에서와 같이 안주없이 독주를 들이키는 일이 적기 때문인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밖에도 민족적인 개인의 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소량의 술은 위산(胃酸)분비를 촉진, 위의 운동을 활발케 한다. 반주(飯酒)가 식욕을 높일수있는것은 이때문. 이런뜻에서 식욕이 없을때 한두잔의 술을 반주하는것은 추천할만하다.

그러나 이같은 위산분비촉진작용은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환자에겐 증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있다. 일반적으로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환자는 위산분비량이 많다. 이런사람이 식전에 한두잔의 술을 들게되면 위산분비가 한층 촉진, 궤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을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전 한두잔의 반주는 위산분비가 떨어져 있다거나 불충인 경우에 한해서 추천할만하다. 식욕증진을 위한 반주는 알콜농도가 좀 낮은 7%정도짜리가 좋다.

술을 과음했을때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급성위염. 알콜성 급성위염은 알콜농도20%이상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알콜성 급성위염의 정도는 알콜의 농도, 마신양, 마신간격등에 따라 차가있다. 알콜성 급성위염의 치료는 우선 술을 끊고 보통 급성위염때와 같이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서 유동식을 하는 일이다.

<췌장>술을 많이 마시는 대주가에게서 급성췌장염(膵臟炎)이 생겨나기 쉽다고 하는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알콜은 췌액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갖고있다. 이때문에 알콜은 췌장에 부담을 준다. 과음하면 췌액이 많이 분비되는 반면 이들이 장(腸)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는 오히려 좁혀진다.

급성췌장염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다. 그러나 술을 과음한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주가에게서 췌장염 발생빈도가 높은것은 알콜단독의작용이라기보다 간(肝)이 나쁘다든지 영양상태가 좋지않는등 여러 요인이 겹칠때 문제가 된다고 보고있다.

급성췌장염은 중앙상복부에 심한 통증과 메스꺼움,구토, 복부팽만감이 따르고 심하면 열이 나는것이 특징이다. 치료는 통증이 심하기때문에 우선 진통제를 투여한다든지 하는 대증요법을 하면서 특수요법으로 췌액중화와 효소억제요법을 한다. 안정과 함께 2~3일 치료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한 부종이 어느정도 가라앉는다. 그러나 심한 궤사성췌장염은 상당히 시일을 끈다.

<혈압과 심장>술을 마시면 말초혈관이 확장, 얼굴이 빨개진다. 알콜은 몸안에서 분해(代謝)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란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이들이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을 갖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은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약간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혈압은 높아진다. 술을 마신 후 처음 혈압이 떨어지는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아세트알데히드의 작용에 의해 모세혈관이 확장된데 있다. 또 알콜의 마취 작용으로 긴장이 풀려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한다. 이때 떨어지는 혈압치는 대략 수은주 높이로 10㎜정도. 주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 다시 혈압이 오르는 것은 맥박이 빨라지는데 있다.

이때의 혈압상승은 20㎜정도. 이같은 혈압과 맥박의변동은 알콜이 몸에서 완전히 처리된후엔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동맥경화와 심장 또는 신장에 병이 있으면 혈압과 맥박이 곧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일이있다.

따라서 신장과 심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단순성고혈압환자는 술을 적당히 마실수만 있다면 크게 해로울 것은 없다. 고혈압이 만일신경성이라면 적당량의술은 오히려 이로울수 있다.

그러나 최저혈압치가 1백10을 넘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신장과 심장에 변화가 와있다고 보아야한다.

「어려운 자리」는 有害…즐겁게 마시면 「藥」

따라서 이경우 신장과 심장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수 없다해도 술을 삼가는것이좋다.

<임신>술은 일종의 마취제이다. 이때문에 술은 임신중인 여성에겐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부작용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태아의 여러기관이 이루어지는 임신 3개월째가 문제가 된다.

의학적으로 술때문에 생겨난 기형아를 태아의 알콜증후군이라 한다. 태아의 알콜중후군은 아기의 머리통이 아주 작은 소두아가 되거나 심장의 기형, 발육부진을 일으키는것이 보통이다.

기계문명의복잡한사회구조속에 살아가야만하는 현대인들이 술을 즐겨 찾게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술을 이용하기에따라선 생활에 활력소가 될수있다.

문제는 술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에있다. 술을 우리 생활의 활력소로 이용하려면 마시는 분위기가 무엇보다중요하다. 술은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악의없이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마셔야한다.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들어 어려운 상관과 함께 술을 마신다거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며 비싼술을 마시는 일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酒道」는 없고

술타령 落島가 술없는「樂島」로

술없는 마을도 있다.

대수롭잖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술꾼들 사에겐 이상한 곳으로 여겨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도甕津郡 德積島남쪽의 낙도 文甲·白牙·蔚島등 세섬은 이른바 3형제 無酒島이다.

仁川港연안부두에서 서남쪽으로 73㎞, 2백톤급 연락선으로 3시간 남짓 항해의 순한 물길을 달려가면 德積島라는 제법 큰 섬에 닿는다.

옛날 延平島조기잡이의 본거지로 서해 어업전진기지였던 섬. 이곳에서 다시 통통배를 갈아타고 남쪽으로 1시간쯤가면 文甲島포구에 닿는다.

섬면적은 11만4천여평, 58가구 2백11명이 모여사는 외로운 섬마을이다.

『술을 팔지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은 범할수 없는마을의 율법이 된지 오랩니다』

마을유지들은 코피를 내놓으며 술대접을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어부들이 술을 안마실수가있을까싶어 한방울도 마시지않는 「금주의 마을」이냐고 꼬집어 물었더니 『그럴수야 있겠느냐』고들 말한다.

어른들의 생일이나 제사같은 특수한날 德積島에나가 한두병 받아다가 이웃끼리 모여앉아 한두잔씩 나누어 마시기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안에서는 단한방울의 술도 팔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한두잔씩」으로 끝나게 마련이라고.

『감질이 나서 못견디지만 도리 있읍니까? 술이 없는걸요』

대단한 술꾼이었다는 어촌계장 金仁植씨(60)는 딱 한잔씩으로 만족하는 것도 오랜 습성이 되니 견딜만하다고 말했다. 술을 구할 수 있는곳은 德積島뿐인데 3일에 한번씩 다니는 통통배(행정선)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니 더마시고싶어도 술을 조달할 방법이 있겠느냐는것이다. 그러나 깡술 과음하지 않아 건강에 좋고 가정불화없어지고 싸움없고 술값 안드는것등 절주가 가져다준 변화는 분명해 좋은 현상이라고 강조하는것도 잊지않았다.

이 마을에서 술이 없어진 것은 30년 가까이된다.

『1·4후퇴이후 이때째인것같아요. 마을청년들과 부녀자들이 술을 없애자고 들고 일어난것이…』

이장 林成實씨(55)는 그무렵 온섬이 술때문에밤낮없이 소란했기때문에 술을 몰아내기 시작했다고했다. 당시 섬앞바다는 새우가 들끓는 황금어장이어서 각지방의 어선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섬마을도 1백40여세대 9백명 가까운 인구로 북적였다. 돈이 지천으로 돌고 술집이 여기저기 생겨나 밤낮없이 흥청댔다. 바다에서 돌아온 어부들은 몇날며칠을 술집에서 딩굴며 싸우고 노래하고 주정했다.

『어른들말씀을 들으면 본인들의 건강과 살림살이에도 해롭지만 아이들교육에 안좋다고해서 들고일어났다고 해요』

부녀회장 延淑粉씨(38)의 설명이다.

처음에는 술집 몰아내기 운동이었다. 술집 주인들과 끊임없는 시비가 벌어졌다. 『무슨 법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에 『아뭏든 문을 닫으라』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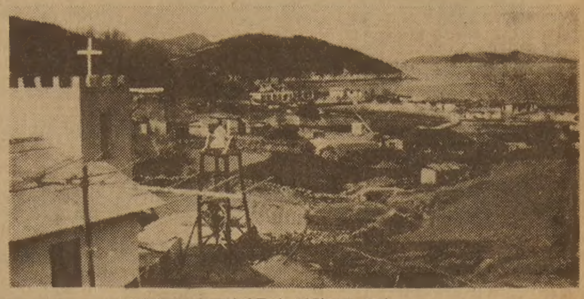
다음은 가게에서 술파는 것을 금했다. 청년들과 부녀자들의 기세가 너무 거세 술꾼들도 차츰 풀이 죽어갔다. 2, 3년 그런 소용돌이가 거듭되는 사이에 술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굳어졌다.

마을에서 술이 사라지자 술꾼들은 仁川이나 德積島에 다녀오는 길에 보퉁이 속에 술을 숨겨 들여오기 시작했다. 부녀자들은 이런「불법행위」가 성행하자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선착장으로 몰려나가 짐조사를 하기도 했다.

술병을 숨겨들여오다「적발」당하는 사람이 모두들 한마을에 사는 정다운 이웃이었고, 때로는 남편이기도 했지만 예외없이 빼앗아 바다에 던졌다.

이번엔 남자들이 들고일어났다. 『제사상과 어른생신상에 쓸 술도 못가져오게하는 처사는 아무래도 심하다』는 반발이었다. 이「명분론」에 부녀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근년에는「단속」이 완화되었다. 팔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한두병씩 상륙하는 것이 허용된것이다.

과음이 빚어내는 갖가지 폐해가 나쁜것이지 한두잔씩 마시는 것이 나쁠것 없다는 상식론이다.


◇無酒島 文甲섬마을의 평화로운 모습。【西海文甲島에서 李基龍기자찍음】

「30년無酒」文甲島…이젠 戒律로
우먼파워가「추방」…이웃섬 번져

20여년전 술청을닫고 밭농사와 김 양식업으로 전향한 金光龍씨(60)도 구멍가게 주인 朴貴禮할머니(70)도 술을 팔지못해 보는손해를 억울해하지 않는다. 『술을 안팔아도 굶어죽는 것은 아니니 주정뱅이마을을 무주도로 바꾼 것이 잘된일 아니냐』했다.

구멍가게 朴할머니는 아무리 가난한 섬마을이라지만 소주를 갖다놓기만하면 많이 팔릴것이라고 한다. 가끔씩 고기잡이 나가는남자들이『혹 한두병없느냐』고 넌지시 묻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실 남자들은 아직 내심 아쉬움을 숨기고있다. 바다에서 돌아와 마실술도 필요하지만 바다에서 마실 술이 더욱 아쉽다는 것이다.

한바다에서 외롭고 고달픈 어로작업을 하면서 목을 축이는 한잔의 소주는 그 감로수보다 단것인데, 그걸 싣고나가지 못하니 괴롭스럽다는 것이다. 더러 德積島까지가서 싣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지만, 번거롭고 시간이 아까와 그냥 나간다고했다. 배안에서 점심을먹을때쯤 옆배에서 한두잔씩 얻어마시고 참아넘긴다는 것.

文甲島의 無酒島운동은 이웃도서들에 번져나갔다. 이 섬에서 남쪽으로 10㎞ 떨어진 白牙島(30세대)와 20㎞거리의 蔚島(58세대)가 몇해전 이 운동을 수입한것이다. 물론 부녀자들이 주동이 되었다.

◇六禮의 하나인 鄕飮酒禮…13단계의 酒道를 갖춘다

조선조때 六禮(관례·혼례·상례·제례·향음주례·상견례)중 하나인 鄕飮酒禮는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양하며 음식을 감사하게먹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술의에티켓이다. 주인이 손님을 초청하는데서부터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권유하고 다시 손님이 주인에게 술을권하며 축제음식을들고 손님이 돌아가는것에 이르기까지 13단계의 주도를갖추며 거행된다.

60㎏인 사람 맥주 12병 마시면 죽음에 이를수도

飮酒와 醫學 — 體重에 반비례

혈중 알콜농도와 취기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맥주0·5~1병, 위스키1잔, 청주0·5~1홉정도(혈중 알콜농도 0·02~0·04%)=머리속의 복잡한 생각을 잊게된다.

▼맥주1~1·5병, 위스키 2~4잔, 청주1~1·5홉정도(〃0·05~0·07%)=몸에 열기가 오른다. 약간 수다스러워진다.

▼맥주 2병, 위스키 5잔, 청주 2~2·5홉정도(〃0·08~0·10%)=걱정을 잊고 다행감을 느끼게된다. 얼굴이 붉어진다. 몸을 가만히 두지않고 자주 움직인다.

▼맥주2~3병, 위스키6~8잔, 청주2~3홉정도(〃0·11~0·15%)=세상에서 자기자신이 제일이라 느끼며 충동적이고 허풍을 떤다. 흥분을 잘하고 공격적이 된다. 떠들썩하면서 기분이 잘 변한다. 눈에 핏발이서고 비틀거림이 심해진다.

▼맥주 4~5병, 위스키 0·7~0·8병 정도(〃0·16~0·30%)=잔소리와 불평을 늘어놓는다. 넘어지기 쉽다. 전신권태감이 있다. 메스껍고 구토가 일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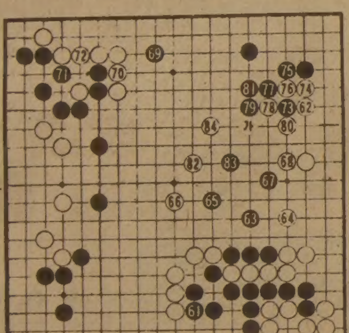
▼맥주1타, 위스키1·5병이상(〃0·5%)=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호흡이 거칠고 길어진다. 심하면 죽음에 이를수 있다.

다만 이표에 표시된 술의 양은 체중 60㎏의 사람이 한자리에서 들이킨 경우를 기준한것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 第6譜 61~84 (덤5집반)

白(7段) 河燦錫<3勝2敗>
黑(6段) 徐能旭<2勝3敗>



전문기사는 초·중반에서 비록 치명적 실수가 아니라도, 불리해서 불과 몇집상관의 완착이라도 큰변으로 여길때가 많다. 물론 이때문에 형세가 크게 좌우되는 일도 중대한 문제지만 그보다 완착자체를 진정 뼈아프게 여기는 것이다.

우하귀黑은 61까지 완생했다. 사실 말하면 도중에 白은 얼마든지「공격의 여득」을 취할 방법이있었는데 그걸 놓쳤으니 河7단이 실망한 허전함을 느낀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바둑은 이제부터. 戰意를다듬으며 19분생각하고 白62로 육박했다. 하지만 국후평때는 이수가 또 문제거리로 등장했다.『白62는 큰곳이다. 이것으로 白이 고무적인 형세지만 대신 黑에게 63의곳을 허용해서는 모처럼의 우세가 유산무소한셈이다』

黑, 活氣를 찾다

河7단도 국후「62는 외담 63자리에 두어 黑3점을 제압해야 되었다」며 지나치게 낙관한 자신을 꾸짖고 있었다.

63은 소위「3점의중앙」으로 피차간의 요소이다. 게다가 白은 64 66 68등으로 각자기 수세에 몰리게 되어 이곤지 입장이 뒤바뀐 꼴이다.

徐6단은 갑자기 활기를 띤다. 우선 黑67까지 선수하고 다시 69 71로 좌상귀마저 선수를 하더니 그동안 허해졌던 우상귀도 黑73이하 81까지로 순조롭게 다져버렸다.

河7단은 약간 긴장했다. 한2분가량 숨을 돌리고 白82 84 어쨌든 중앙黑을 위협하며 주도권을 잡을 요량이다.

여기서 黑은「가」로 순순히 연결해 갈것인지, 아니면 숫제 손을 뺄것인지. 徐6단은 좀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一九】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05>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明暗 ㊴

오옥이가 그걸 규명하기위해 애쓴지는 오래전만 아직 규명하지 못한채 이사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녀는 마치 그것을 규명하기위해 미순이네 식구가 됐던것처럼 그것하나 규명하지못하고 미순이네와 살면서 한 온갖 수고가 송그머니 아깝고 후회스러웠다.

『넌 어딜 그렇게 맨날 쏘다니냐?』

미순이 어머니의 눈매가곱지않았다.

『제가 언제 맨날 쏘다녔어요?』

『조년이 번번히 말대답이야. 어서 안방에 들어가봐. 할머니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니까』

안방으로 오옥이가 들어가고난 후에도 어머니는 그옥에다 눈을 흘겼다. 서로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건 오옥이를 입적시키고난 최근의일이었다. 미순이네 부모는 천애의 고아를 거두어 한식구 삼은 것만도 크나큰 은혜인데 게다가 입적까지 시켜준다는 건 본인이 감지덕지해야할 것은 물론 온 세상이칭송해줘도 과하지 않을만한 훌륭한 일이란 자부심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칭송은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도무지 감사할줄 모르는데는 화가 안날수가 없었다. 감사는 커녕 그런 제안을 처음부터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시큰둥하니 받아만놓고 쏘다닌다 말 한마디가 없었다. 주객이 뒤바뀌어도 분수가 있지, 아니꼽기 짝이없는 걸 꾹참고 그녀의 [illegible] 나무라기도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오옥이란 이름은 그대로 놔두기로 하고 겨우 입적의 승낙을 받은 것은 그들의 인품이 남달리 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쉰 사정은 더욱 오옥이의 마음을 토라지게했다.

『어딜 갔다 이제야 오는게야? 온다간다 말도 없이 나가가지고』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오옥이는 그집 식구중에서 할머니를 제일 좋아했더랬는데 요샌그렇지도않았다. 식구들이 그녀가 할머니말을 잘 듣는다는 걸 이용하려는 낌새가 보였기때문이다.

『극장구경요』

『쯧쯧 박군하고 둘이서 제법 극장구경 갔고쇼갔쇼 [illegible] 생전 극장근처도 안갈놈이 [illegible] 혼자서 무슨 청승일꼬. 머문다나 가게 점심 내갈 시간에…』

『가게 점심내가기 싫어서 일부러 피해나간 걸요』

『조 말버릇 좀보게. 왜 싫어. 점심시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사람 생각도 좀 해줘야지. 애교도 한두번이지 거듭되면 눈밖에 난』

『나면 나라죠. 누가 겁나봐요』

『글쎄 그런게 아냐. 계집이 시집가기 전부터 사내 눈밖에 나서 이로울게 뭐가 있다구. 박군이야 안그렇겠지만 [illegible] 제 계집 편에 [illegible] 사내도 없지 않아 있는 법이니깐』

『글쎄 전 박군한테 시집 안간다니깐요』

오옥이가 발끈했다. 박군도 미순이 아버지가 경영하는 전파사의 점원이었다. [illegible] 전파사의 셋이나 되는 점원중의 제일 고참이요 우두머리였고, 기술은 물론 [illegible] 경리일까지 맡고있을만큼 신임이 두터웠고 또 그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했다.

생긴것도 번듯하고 건강하고 오옥이처럼 천애의 고아는 아니라도 혈혈단신 외로운 몸이라했다. 아들을 못 둔 미순이 아버지가 기회처럼 의지하는 건 당연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명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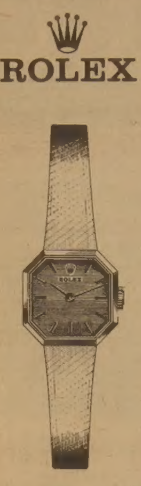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가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은하보석

개업 6주년 기념

「캐나다연방정부의 보석가공공장면허소지업체」



THE GOLDEN TONE IN ROLEX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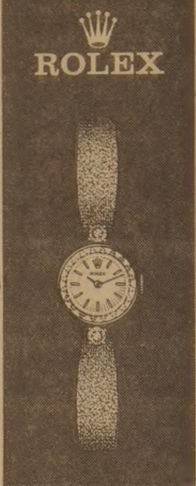
A fashion statement with subtle elegance; the 14kt. yellow gold octagonal model with tapered mesh bracelet.

GOLD FINGER

로렉스시계 진품을 원하세요? 북미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국인의 로렉스 판매대리점. 계속 앞서가는 은하보석을 찾아주세요.

각종화장품을 비롯한 귀국선물도 취급하고 있읍니다.

로렉스 여자용 수동식
금시계 염가판매



CERTAIN WOMEN WEAR ROLEX GOLD WITH A DIAMOND ACCENT

The exceptional 14kt. tapered gold bracelet with two full cut diamonds and 17-jewel movement.

★투자용 금괴매매 업무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시작했읍니다.
「단 1온스당상. 금괴매 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 후4시까지. 월~금요일이며 익명보장」

순금개시

★순금목걸이, 반지, 팔찌도 만들어 팔며, 가격은 무게로 생각할때 14금 제품보다 훨씬 싸게 먹히고 다시•본사에서 사들이기도 함.
단 한국에서 생산된 순금 제품은 본사의 순도검열을 거쳐야 함

다이아몬드 도매가격 대매출

「은하보석이 금・은 보석을 도매로 팔수있는것을 캐나다법이 인정합니다」

STOCK	CARAT	COROUR	CLARITY	PRICE	STOCK#	CARAT	COLOUR	CLARITY	PRICE
A934	1.70	J	VS−2	12,500	M20	0.94	J	I −2	2,900
AP701	1.50	I	SI−2	7,450	AP706	0.81	I	SI−2	3,100
AP702	1.25	H	S1−2	5,700	AP707	0.80	I	VS	4,300
A1018	1.24	H	VS−2	8,440	AP708	0.77	I	SI−2	2,890
619	1.36	J	I −1	4,350	AP709	0.72	J K	VS−2	2,550
AP703	1.11	I	SI−1	6,150	837	0.78	E	VS−2	4,950
AP704	1.06	G	S1−2	4,750	A638	0.62	H(Heart)	S1−1	2,200
AP705	1.05	L	S1−1	4,850	B301	0.65	JK	I −2	1,250
M19	1.03	J	I	4,350	M21	0.58	G	VS−2	2,590
A1032	0.55	I	VVS2	3,063	A1003	0.51	E	VVS−1	3,690
M22	0.56	I	VVS1	2,850	M23	0.50	I	S1−1	1,800
M24	0.54	H	I −1	2,150	B302	0.58	JK	I −1	1,150
B303	0.53	JK	S1−2	1,170	C430 C437	0.43	JK	S1−1	690
B304	0.37	JK	I −1	590	M25	0.41	J(Marquise)	VVS−2	990
M32	0.37	G	VVS−2	1,560	M33	0.41	JK	S1−2	699
M34	0.38	JK	VS−2	710	M37	0.33	JK	I −1	510
M39	0.35	JK	I 1	499	M38	0.33	H	I −2	550
C296	0.30	H	VS−2	680	M35	0.35	JK	VS−2	680
M36	0.34	JK	I −2	499	C299	0.31	H	I −2	499
M42	0.34	JK	S1−1	480	C291	0.30	H	VVS−2	990
M41	0.30	JK	I −I	470	M40	0.32	JK	I −2	410
D 333	0.31	H	VVS−2	1,200	M51	0.35	G	VVS−2	1,250
A 662	0.31	H	VVS−2	1,230					

상기 다이아몬드 품질표시는 미국 G.I.A.CODE에 준하고 가격에는 반지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읍니다. 반지가겨은 디자인에 따라 격차가 있으나 대충 $70에서 $150 정도로 본사에서 봉사해 드릴수 있읍니다.

은하보석상

620A BLOOR ST. W.

☎ : 534−9977, 534−7791

양궁 金珍浩 再起

60m서 世界新 2개

대표評價戰 신예 金美英도 30m 더블서

非公認

◇과녁을 겨냥하고있는 金珍浩。오랜 슬럼프에서 벗어나 또다시 「베를린의영광」을 노리고있다。

金珍浩가 또다시 일어섰다。金珍浩(21·한체대)는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양궁선수권대회 (7월·日本홋까이도)파견 대표 선수 평가전 최종일(7일·태릉선수촌) 여자부 60m더블과 싱글에서 2개의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 오랜슬럼프에서 벗어났다。

金은 이날 60m 더블에서 종전세계기록보다 30점을 능가한 6백73점으로 비공인세계기록을 세웠다。

종전 세계기록은 79년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서 金珍浩가 세웠던 6백43점이었다。공인기록으로서는 6백43점이 최고였으나 金은 79년8월우수선수 평가전에서 6백59점의 세계최고기록을수립했다。그러나 국내대회여서 공인을 받지못했다。

金珍浩는 이날 60m싱글서도 세계기록을 3점능가한3백39점의 비공인 세계기록을 세웠다。金은 79년 우수선수 평가전에서 3백36점의 세계기록을 작성했었다。

이날 신예 金美英 (인천시청)도 여자30m더블에서 6백95점의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세웠다。종전기록은 金珍浩가 79년에세웠던6백94점。

이번 대회서는 남자선수들도 분전, 이날 70m더블에서 1위의 李龍浩 (경남대·6백43점)와 2위의 朴益洙 (전남대·6백36점)도 종전 기록보다 각각 10점、3점능가하는 한국신기록을마크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서는 첫날 3개의 한국신기록이 수립된 것을 비롯、모두 3개의 비공인 세계기록과 5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최종일 기록 (각종목 1위)

▲남자90m 더블=鄭善基(삼익악기) 572▲동70m=①李龍浩 (경남대) 643②朴益洙 (전남대)636이상 한국신 (종전 633) ▲여자70m더블=梁景順 (성모여고) 631▲동60m=金珍浩(한국체대) 673·비공인 세계신 (종전 643) ▲60m 여자싱글=金珍浩 339·비공인 세계신 (종전 336)

슬럼프脫出한金珍浩

작년末부터射法바꿔 "亞洲경기서金따겠다"

재기한다、못한다로 엇갈린 평가를 받고있던 金珍浩가 2년만에 부진의늪을 탈출했다。金이 슬럼프에 빠진 것은 80년 4월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결정이후。金은 7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서 5개의 금메달을 차지했고 올림픽 출전 대표선수 평가전에서 4종목에 걸쳐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절정기를 맞았었다。

최대강적인 蘇聯의 부투초바와의 대결을 그리면서 올림픽金메달을 꿈꾸던 金은 올림픽불참결정이후 의욕을 상실、설상가상으로 81년 3월에는 오른쪽 어깨근육을 다쳤다。양궁‖金珍浩 동식은 이때부터빛을 잃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鄭甲杓씨가 다시 대표팀 감독을 맡은후 金은 사법(射法)을 바꾸었고 활을당기는 오른팔을 최대로 펴 수축된 어깨근육을 풀었다。

3월부터는 침술원과 약국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치료、자신을 되찾았다。

『11월 아시아 경기대회서 꼭 금메달을 차지하고 싶어요。그리고 내년 멕시코 세계선수권대회에 도전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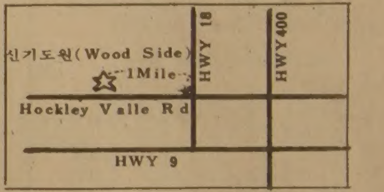
3년전 베를린에서 세계를 깜짝놀라게했던 기적은 재현될까。【金仁奎기자】

하기수양회

하나님의 축복이 각교회 성도님에게 임하시기 축원합니다. 금번 한국에서 16년간 반석기도원을 운영하시며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김영자원장님을강사로 모시게 되었음으로 시내 각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이 수양회에 참석하여 은혜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준비물 : 성경, 담요, 세면도구 (식사는무료제공)
일 시 : 6월4일(금)7시~ 6월6일(일)아침
장 소 : 협신기도원
6 HOCKIEY VAllEY ROAD
연락처 : WOODSIDE, 245−1687
강 사 : 김영자원장 (반석기도원 원장 16년간 역임 현, 영광장로교회 전도사)

〈예비집회〉
일 시
(1) 5 월28일 금요일 7 시30분
한인펜티코스탈교회(300 Queen Dr.)
(2) 5 월30일 일요일 7 시30분
토론토기도원(100 Lawlor Av. Tor.)



주최 : 협신선교협회

토론토한인교향악단

제 4 회 공연

교포여러분의 힘찬 성원으로 지난1 년동안 놀랍게 성장해온 토론토 한인교향악단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정명화씨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이 제4회 공연을 베풀고저 합니다. 이번에도 함께 나오셔서 아름다운 예술의 향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 휘 : 김 승 순(Sung-Soon Kim)
첼 로 : 정 명 화(Myung-Hwa Chung)
곡 목 : 1) Rossini−Overture to "William Tell"
2) Dvorak−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3) Beethoven−Symphony No. 7 in A Major, Op 92
장 소 : RYERSON THERTRE (43 Gerrad St. E.)
일 시 : Saturday, May 29, 1982 8 : 00 P. M.
티 켓 : A석 : $10, B석 : $8.

※티켓문의처 :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2900 STEELES AVENUE EAST, SUITE 220, THORNHILL, ONTARIO, CANADA L3T 4X1 TEL; (416) 881-8211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샐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오전 11시~6시30분 전화 : 530-1870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광고문의 533-2381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x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 ·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사람을 찾음.
정경희(여) 부군 MR. 양.
부산태생으로 10여년전에 오타와에서 결혼
딸이 10~12살 정도 됐을것으로 짐작.
찾는이: 미국 발티모 최선희
집: 1-301-256-9088
B: 1-301-686-0192
혹은 몬트리얼 조병철
집: 1-514-486-7945
B: 1-514-484-3541

미치 일본 식당에서 일하실 요리사와
혹은 견습요리사 구함.
459 Church St. Tor.
전화 : 924-7501(오후12 : 30~오후6 : 00)

양복점 기술자 구함
남자 테일러, 여자재단사
중국인이 경영하는 고급양복점으로 작업환경이
좋고 고급기술을 습득하기에 좋은곳.
희망자는 직접 내방하기 바람.
737 Broadview Ave. Toronto 부로드뷰와댄포스남쪽

아이스크림 스토아에서 일할 학생구함.
(미시사가지역 여학생환영) 전화 : 277-8772.

Rose Garden 웨이추레스 급히 구함
경험자. 영어가능자 원함.
전화 : 654-6609 12시 이후 연락바람

학생구함
피아노 레슨. Theory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오후 5시이후 연락바

남·녀 관계없이 Milk Store에서
일하실 Helper구함
전화 : 691-3666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7

입주하셔서 아기 둘 보아주실분 구함
전화 : 929-0882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톰), 531-0773(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Building For Sale
토론토 서부지역 매우좋은 위치의 Corner building
10 Apartments, 7 Stores
Yearly Income : $79,000
Yearly Expense : $23,500
First Mortgage : 13%, 1985년까지
아스킹 프라이스 : $439,000
Call Spiros 762-9134

Variety & Hardware Store 매매
주매상: $9000이상 권리금및 Stock은 All Cash
요구, No Mortgage! 리스 4년+옵션 5년
361 Carrville Road, Thornhill Ont. (Hill Crest Mall옆)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lk Store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5년+옵션5년
394 Browns Line, Etobicoke, Mr. Kim

모든 면허가 나와있는 레스토랑(Tavern)
급매. 중국음식과 한국음식을 겸해서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임. 매우 좋은조건의 Rent
와 Long Lease. 좌석 : 156석
위치 : 21 Vaughan Rd.
Ask Paul or Ivan 전화 : 656-9503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OPEN 1년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코저 함.
주매상 $3,500 렌트 $500
두대의 비데오 머신에서 렌트비 카바함.
전화 : 961-9780(B) (오후6시안으로)

좋은위치에 3 Bed Room 포함한 토론토
북쪽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의 수입좋은 가게 매매
Royal Trust Real Estate
전화 : 773-6101, Bud Eige

큰 규모의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2,400 sq. ft. 주매상 : $7,500
아스킹 : 7만불+스탁
전화 : 769-9704(5시이후)

건물및 상점(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현주매상 : $8,500~$8,800 아스킹 : $229,500
로타리오 머신 (별도)
237 ParkLawn Rd.(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최고의 거주지역에 위치한 Corner Variety Store!
(독립2층빌딩및 비즈네스)(Detached Drick Two Story Building)
아스킹: $239,000 주매상: $4,500이상
다운페이: ¼ 아스킹 프라이스
Carol Chao 596-8681
Gulios Aloi Real Estate

2 Ton(2000 Kg) 적재할수 있는 Condition좋은
Trailer 매매 가격 : $1,200
전화 : 532-0602 (3시에서— 식사이에 연락바람)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노력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200-4,500, 아스킹 : $29,000+스탁
1000 Pape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ck
Shop)주매상 : $3000이상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 (Oakville)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그로서리 기프트 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위치는 동쪽
연락처 : 281-2730 강(11시~5시)

성업중인 그로서리 및 버라이어티 딸린
건물 급매
전화 : 532-8260

써브-마린 가게 급매 아주 좋은 조건임.(Barrie중심지역)
전화 : 1-705-722-7422. Mr. Eloi 낮12시-오후10까지연락
낮12시~오후10시까지 연락바람.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Using Language Labor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months (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Varity, Fruit & Vegetable Stores For Sale
(꼭히 영어로 문의하시기 바람)
Call Peter Chung 636-1504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Hamilton지역)
주매상: $4,500, 아스킹: $45,000+스탁, 리스: 7년+10년(옵션)
리스: 7년+10년(옵션) 전화 : 1-388-4825 (Mr. 유)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000
4 비데오 머신, 라이센스와 로타리오 (로렌스×브림리)
전화 : 261-4469(Joe) 오전7시30분~오후6시 사이에 연락바람.

2베드·룸 딸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사정으로 급매.
리스 : 4년, 옵션 : 5년, 렌트 : $550.
전화 : 266-4866 (월~토)

Kingston Rd. 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식당과(Snack)아이스크림 & 그로서리를 겸한 가게 급매
499 David Dr. (New Market, Ont.)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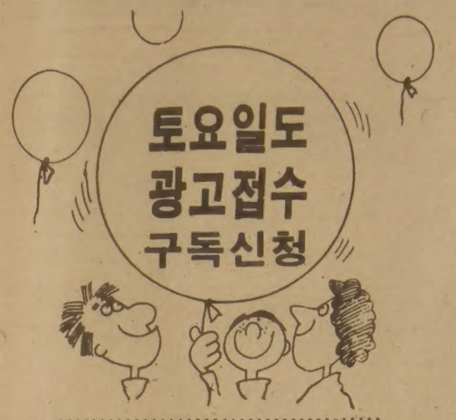
하우스 렌트

3개의 방이있는 사무실 렌트 합니다.
(Professional Suit) 회계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적합.
815 Bloor St. W. 2nd Fl.로 직접 내방 원합니다.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즉시 입주 가능한 교통이 편리하고 1년반된 최신식 시설
의 미장원 Rent($500/Men.) (St.Clair × Weston)
전화 : 763-3289, 444-1322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한국일보광고부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 역 및 통 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한국일보 안내광고 ＊